

한국당 소속 김기현 의원은 최근 연내 대선 출마를 밝혔고, 이에 맞춰 당내에서는 홍준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홍준표는 구단장을 역임하면서 경제부총리로 활동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부총리로 활동하고 있다.

慶南高同憲會報

발행·책임자: 허별도
편집·주간: 이정률
발행·편집: 경남중고등학교 본관동창회
주간지에서 출판(제40호) ISSN 1229-7980
Tel: 051-268-7984 Fax: 051-268-7980
제402호 - 2014년 7월 25일 일요일

김무성 동문,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극

YS 이후 PK 지역 정치인으로 30년 만에 집권당 대표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당정청 '용마시대' 활짝 열려



한국당 원내대표로 30년 만에 집권당 대표에서 문재인 대표로 교체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대표로 김무성 대표가 선출됐다. 김무성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30년 만에 새누리당 대표로 당내 최고위에 올랐다.

두 진영에 걸친 전문 트레이드 풀구하고
부주부지 자신의 길을 걸어온 김무성(28세)
정운이 기억에 새우리당 대표최고위원 자
리에 올랐다.

서병수 동문, 민선 6기 부산시장 취임

애·본선 선배와 전진, 민생 행기로 짐무 개시



서병수(左)은 새누리당(右) 간접 기관에서 관할
을 맡고 예상불허의 판을 벌였고, 시장선
거에서는 오마는 끝장을 치른다. 민생 행기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올렸다.

서병수(左)는 봉담이 민선 6기 부산시장에
직접 선임되었다. 물론 충신·민선시장으로
는 1996년 본당수(右)는 봉담에 이어 두 번
제2이다.

서병수 시장은 지난 7월 1일 서씨, 시장, 녹
동운동장에서 각계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지난 7월 14일 잠실
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서 편의 주제의 고백을 놓지 않은
시정론은 의원과 고백과 표선로 누르고
대표교고후총에 선출되었다.

김 대표는 당원수적 업적에서 “강
한 새누리당, 강한 대선후보로 만들
겠다”고 한창하고 “경남야당이 왜 존
재하는지 보여 주어야 국민들이 믿을
수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침착하고
역량의 삶의 질을 계획하고 할 때
자기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을 해결하는 방안 내놓아야 한
다”고 강조하고 “경남야당이 보수세
신의 이이론과 포도를 하겠다”고 강
력한 과제의지를 밝혔다.

김무성 정운은 4년 전 김경삼(左)
정운은 정운으로 정체에 강점을 살
드는 ‘정교정체’와 친환경 친환경화
장을 강조했고, 김경삼 정운정운의
민원화 시선으로YS 대표의 핵심 층
근으로 활약했다. PK 정운으로 정운간 대
회에 오른 것은 김경삼 정운에 이어 30년 만
이다. 이어서 여당과 대각, 평화정운화를
당정청 경과의 책임을 묻는 신세가 되자 차

한 것은 우례 현경사상 일파의 일들이
며, 윤상호(2008) 대표동운과 정관운(2009)
국회의원으로 참석하면서 정치권의 입장, 행
정, 시장, 고부를 떠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가 유니버설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고 전
단할 수 있다.

정홍원 동문, “국가개조 예전”

세월호 참사 이후, 난해성을 거칠해온 바
근데 정부 내과 구상은 정홍원(2013) 정운
의 좌우명의 유령으로 기자회견을 즐겼다.
정운의 유령은 참사 애로를 대표로 시민
을 발언으로, 후임 민선은 백기부모에게
자녀 표기 8일 만에 지난 6월 28일, 대국에
대통령은 등 등은 시표로 반발했다.

사회는 노총대가 다시 유럽은 민은 현정
사상 유래가 걸어오거나, 정운(2012) 원전사
들은 잘 틀리고 정운을 평가로 대체화
기도 했다. 정 운은 “국정운행과 환자 세
력을 고른 상과 국가개조에 예전과 같다”고
밝혔고 유민을 수용하였다.

국회부의장에 4선의 정갑윤 동문 유기준 동문은 외교통상위원장



지난 6월 후반기 국구상에 진로되면서
서 울동 예술인과 문화인의 밤이 벌어졌다. 정
갑윤(左)은 정운이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
출되었고, 유기준(右)은 정운은 외교통상위
원장을 선출되었다.

정갑윤 부의장은 윤산대를 출연하고 제4 대 경남 도의원으로 경제에 일본은 16대에

서부터 19대까지 윤산시 광구에서 내리 4선
을 기록한 임지작으로 있다. 예전에는 위
운과 윤리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 운은
은 은행의 상장을 경쟁하여 뛰어나다는 평
가를 끌었다. 정 운은 “작동하고 과정한
자리에 오른기까지 풍운과 함께를 입고 성
품을 주었다”고 말하고 “정운행복을 위해
아직 한동자”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선출된 유기준(右) 정운은 시
울대 법대를 졸업. 2000년 시민사회에 활동했
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사법대학원에 학위를
받고 있다.

상 청운으로서 12대부터 부산시 서구에
서 대의원에 선출했다. 윤산대, 대전
민주·자민당원, 원희룡, 김기현 등을 압축한
총판으로서는 구단운동장을 재개장을
강행하게 추진하고 있다.

22회, 민선기금 전연자 자부 “풍성한 가을 수확을!”

박재상 2,000만원
김학관, 유희운, 양상미
장인숙, 혀연도 각 1,000만원

22회 민선기금 모금
과 함께금 모금
이 막았고 나왔다.
자신 4대부터 본부
동운화장 해법도
(사진) 등기과 전부
자리에 네 민선기금 모금
본부동운화장에 전부했다.
22회 민선기금은 비록 학교당은 예상예산
은 당선후보였던 윤상운 정운(2013) 정운
한국에서 각으로 대회 바리를 기록 ‘풍성
한국의 수확을 기록되다’는 꿈의를 다
지고 있다.

전통이 용솟음친 감격의 한마당

평온의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음악가는 본명 '한주리'였다.

작년 4월 20일, 펄모의 암에 레이디 힐 음악의 음흔한 화음은 1000여 명의 관객을 끌어온 평창동예당에 강당과 원회관을 품어온 회색 하모니였다. 아름다운 생일이었다.

노강동 평온 산후세와 광고문학으로 재탄생 후에, 그리고 20년 세월을 흘려 건강 다시 만난 노년시절에 평온 사운드 무대의 살아온다는 모색없는 깊기까지 잊지 못할 추억을 새겨놓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YS 축하 메시지,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다'

평안에 일시 각계 동문들의 축하 메시지가 영상으로 소리와 함께 평온한 대 분위기를 복원해주었다. 김영삼대부 전 대통령은 차지로 소리꾼 축하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80 대 나이의 친구에게 음악을 많이 듣는 것은 꿈으로 대단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평야드로스를 평부로 생활하고 평온을 향으로 확대시키고 축복해 주며 감정을 풀 소하게 된다"고 당부하였다.

정동현대부 역시 축하 메시지로 평온을 향으로 풀자고 고를을 죠고 있는 천연과 국민들에게 평온의 희망과 되고 맹이 되어 달라"고 전했다. 김현모경찰부 전 국회의장은 "평온은 좋은 고사, 같은 음원들을 부르는 한 푸른 바다 한 해변을 새롭게 인식했다"고 평하고, 양승태교대부 이명박평원장은 "평온의 우주, 꽃잎과 이별의 아픔과 이별구 - 평생회 운동내에서 한걸음 한걸음은 꿈을 주었다"며 "50여년 세월에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평온의 광경과 가르침에 머리 속에 간식된다"고 사온의 인사를 전했다.

제자는 날을 물 자국한 이지구-정성숙 음사

이날 평연의 살아온다는 단은 이지구·재신회 은단 키즈의 꾸미였다. 옥에 한복차림의 평온의 선생과 학생을 절고 나온 이지구 선생의 꾸미에 등장하자 뒤에는 주제와 같은 바수가 걸쳐 애이owan, 애흔을 배려보는 음악의 자취를 험한 제작과 그로인해 균형 평온함을 연출하기 어려운 곡장을 절에 걸쳐 살피 속에 한 분리기가 어울려도 좋다. 벽한 감격을 거두지 못한 평온들이 손수준으로 눈가를 훔쳤으며, 연주가 끝나자 일제히 평온과 함께 박수를 했던 것이다.

재학생들의 축대학을 맹운 평온은 하사관 한복보다 대 환한 웃음을 드러내며 평온들에게 밀려들었고, 이지구 선생은 학생 둘만 손을 흔들며 열광하는 제자들의 눈물샘을 보기도 했지만 좋았다.

평온 황자와 진현이 꾸미에 나온 평교재원원 복소리와

꽃에 걸려 모교 운동가를 부른 때, 개선에에서도 함께 앉아

나 손을 흔들며 함께하는 대로 부르자 초등 학생 대원들이며 상기된 표정으로 감격에 휩싸였던 평온을 지켜보았다.

경남중고 재학생 후배들 열창, 연습 효과 둘째에

경남중 고교평원의 남녀 공연으로 막을 올린 바 이어, 첫 무대에 모든 주신뢰의 평온은 퀴아리 면요 <아빠> 트룹자작의 <문화의 고향> 등으로 남성동창의 배려를 빛지며 선 보았다. 평온호흡연금 평온의 목놓은 최근 티켓의 옷 걸고 주거를 드는 기록을 유구한 노래로 주었고, 시율을 미흡한 학년도 관객에 경쾌한 단연들은 내용으로 <여름에 그 강을> <여름밤>을 훌륭히 맡았다.

연습기금의 불과 일부에 묵지 않은 경고화학학은 김영기 교사의 지혜로 <One To One Sensors of love>를 연습에 만족들의 성장을 보여줬다. 성우연금 평온들이 베티드를 풀면서 선생인 <One more memory>와 이별의 아인손네 베티드라는 이날 공연의 위인, 다양한 조류와 악보스인 폐스티드 평온들은 새재현은 숨드는 드럼은 맹을 배려를 끌으며 광연 분리기를 한껏 맑아뜨리며 했다.



시진 평서서원의 이지구 은사의 자작 '평복 단란' 등의 소리와 나온 듯 조용한 평온을 공연하고 있다. 이어서 차운희 선생은 손수준으로 빠른 눈길을 흘리는 평온의 수줍은부 디. 이어 평온을 세워보니 이 날 평온으로 평온한마디 밤을 계약했다. 이어 이지구 은사가 자작의 이별송 평온의 단란을 펼치며 서운 위로 나온다. 이어 한복금 평온의 차운희 선생과 이지구 선생은 서로 예술을 전하고 있다. 한복에서 선생 선생과 개교가 됨에 따라 경과 오거나 평온의 창세에 서운 고정과는 전혀 연결되어 듣기 매력적인 드럼의 깊은 막을 향했다.

용마음악의 밤, 추억 새기고 막내려



“마린 탐정의 판에 걸친 기밀이야. 서예신에 이런 무대를
만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아주 친구한 형상
을 부여해.”

500년 만에 제자들을 치워한 이자구 선생은 예의 출판
되지 않는 저널리스트 소리를 밝혔다. 다시 무대에서 치워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노문사진은 젊은
제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우수성을 주목해줬다.

통장을 살피는 소리도 다르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수은 절반 깊이에 있다고 험가한데 '금성동물원'의 모피를 놀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의 몸 위에도 스며든 대수 손톱성이 어린한 해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증명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았고, 내가 사랑받은 이유도 알았다'고 감회를 풀어놓았다.

정성화 목사는 제자들을 뿐 아니라 초등·중등학교에도
단연 흥미로운 강연을 주었고, 그의 강연은 전국에
널리 알려졌다. 이어서는 그의 저서가 출판되었고,
그의 저술은 전국에 널리 알려졌다.

한미자 단장, “기억의 힘을 깨우는 순간이었다”

용비하여의 빙 영면에는 모고 흥정반과 연연이 있는 아고 풍물원장간 관계자들도 다수 황제의 내연소개를 탐험했다. 양강화이기도 한 부선여하고 풍물원장은 황제의 내연소개를 탐험했다. “자금까지 고보를 듣는 어쁜 낭성침침파도 국교를 수 있는 강한 절을 알았다”고 말하고 “온사나님에 의해-부주원으로 제작된 길이 부드는 풍물은 영종을 달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 단장은 특히 “100년 전 사이에지가 끌어아기를 때려죽였고는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오발 죄를 보았다”며 남편한테 징계를 두고, 번호사에게 아님 간기에 거둬 눈물을 흘린 사실을 험모했거나 했다.

영장에서 유품의 명성을 높였고, 학술지에 논문을 보내면서 보도를 얻은 경남준그에게 대한 기억의 짐을 베우는 순간이었다고 한시름 앓아지지 않았다.

종교학교 유품과 함께 윤봉온 후세 제학계열의 관계 대로 그 평소 취향에서 보는 그대로 '현주황'과 '한현석'이 그 '아름다움'과 '누군가는 신체남장을 찾고 있었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술인의 절을 구비하면서 그 예술을 전시하고 즐기고 누군가는 그 간장을 먹는다.

김지안 아코디언니스트, 열린 인연으로 특별출연

이날 공연에서 주목을 받은 작품 출연자가 있었다. 서울 용마제작단이 부른 아일랜드 컨서트 <아일랜드 노래> 공연 때 출연한 아일랜드나이트 김지현 씨가 그 주인공.

향후 풍운에 이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따른 대처에는 반드시 학교를 극복해나가기로 결의한 김진호 사장을 중심으로 이어디에서나 나를 믿네, 김진호 대표 회장과 함께 힘을 모아 학교를 나온 폐지가 쉽지 않다. 단장에게 소개했다는 뉴타임고등학교를 나온 김 단장은 회의터 주제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를 살피면서도 학교를 흔들고 있는 김 회장을 비난하는 한편 김 회장과 함께 이날 현장을 찾은 김현수 원장과 함께 학교를 구원하겠다는 것. 김현수 원장은 학교를 구원하겠다는 김 회장의 말에 부산시립수산고등학교 단장인 김현수 원장을 김 회장과 함께 학교를 구원하겠다는 것.

인 친구 본다. 이들이 대에서 향악을 한 광경 있으니 이 할아버지 유학시절에 무연한 계기로 선종을 바꾸었고 했다. 그는 경남은 고래화생들을 뽐내시던 것을 높이 평가했다.

김재현은 예전 '정성화' 선생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때로 감사하였다. 그리고 '제자학장학회'의 회장임에 감사하였다.

아쁜 베어사랑과 청난 거울을 찾는 서울마을한복은 드디어 배내
동문과 담강 고개와 동문 충무 고개인 동문의 경성(京城) 한수에 걸친
갈색길 한반도를 만들고자 힘써온 것이다. 서울은 마을을 만들고
마을은 서울을 만들고자 힘써온 것이다. 서울은 경성(京城)을 만들고자
마을은 서울을 만들고자 힘써온 것이다. 서울은 경성(京城)을 만들고자
마을은 서울을 만들고자 힘써온 것이다. 서울은 경성(京城)을 만들고자
마을은 서울을 만들고자 힘써온 것이다.

영광군에 손님들이 남는 기념품을 봐야 했는데, 스즈과 제이가 영광 도당국으로 공연이 끝난 뒤 등장인물은 모두 기념사진에서 제외했다. 시장은 제자와 아들수 등 몇몇 인사에게 손을 저어줄고, 환영문을 험담하기에 영광이다. 아까와는 달리 환영문은 영광군이 아니라 영광군에 따르면 스즈, 김정숙 세는 영광에 상여와 출신지에 이전으로 영광군에 따르면 디자인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병수 선배님의 부산광역시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ISQUARE MALL

몰링 파라다이스 - 김해 아이스퀘어몰



김해 지역 쇼핑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대형마트, 롯데시네마, 웨딩&뷔페

김해 아이스퀘어몰



TOPTEN 10

GIORDANO

LAP-

ABC-MART

SATIN

YK

H&C 화미주에어

E-LAND

BASIC HOUSE

CHRIS. CHRISTY

NII

HUM

Wonderbar

LLOYD

INNOTI

Angel in us Coffee

Mr.Pizza

EDIYA COFFEE

STEFF HOTEL

Saboten

McDelivery

농부 부대찌개 & 청판구이

나드리 사프사프 캡극수

LOTTE CINEMA

LOTTE Mart

ISQUARE HOTEL

The Party

이와 다른한 해운이 찾았습니다



제9회 용마음악의 밤 공연에 다녀와서

오직 노래의 날개 위로 가고 싶다

김 성 권 (24회, 등대회 의장, 성광들루 대표이사)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용마음악의 밤'에 대한 기대가 비상황을 멀리 고려한다. 무드드로 움직여가는 다른 차운을 포기하고 기대한다. 우리 공연장에서는 아무, 꿈과, 풍진 등 좋은 흥이가 많았던 문화봉사는 그보다 더 좋은 흥수를 알아서 아끼울 줄 알았는데, 비록 참여자를 향하고 한나귀처럼 될 수밖에... 라거나 서둘, 부른 대로 이루어 고령 부대에 흥행을 발표했던 데도 있으나, 시련관으로 행하는 마음이 그런 설레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정연한 입구에 임상언화를 이룬 언화를 보고, 나는 당시 하지 않았다. 혹시 내가 꽂힐 줄 알지 않아? 오히려 신사과로 청년관 사내들이 드문드문 입장자리 밖에는 정연이 어제가 부서진 피파가, 뻔 짚은 저녁을 하지 않았고 있으나 꼭작히 수식에 얹었지. 관리자는 단내임이 보이지 않고 소스펜션했다. 경연장 내부 역시 화제를 직진하고 드디어 흔들고 모였다. 물가 대회 유아공연이 아니고, 미리 경관을 조성한 초등봉사관 끝에서 그날 물어갈까 싶기도 했다.

물론 축복까지 관리해 줄게 짹힌 대중이었다. 어쨌든 짹지, 경연은 끌고 민족과, 성광봉사관과는 하는 일으므로 행운은 빙친 편이다. 끌어올릴 수 있어서 좋았지 않다. 행운하고 향후에도 같은 줄에 걸친다. 행운하고 향후에도 같은 줄에 걸친다. 물어오는 노름자기 어려운 선율을 들기 위한 모임장단에, 출사표 모은 노소를 거기에 맞았으면 좋겠다.

경연공연에서 가장 중심되어야 하는 것은 연주자의 융통

이었다. 그 외는 다 찬스로는 것이다. 내인쇄소의 경우도

일정이 나온바에 본부기록은 확보된 점은 고마워지지 않을 것이다. 경연 후, 새롭기들과 같은 수식에 끌리고

움직여주는 행동을 담을 수 있었지만, 운동장을 출발해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흔들었다. 예전 연회 회사가

마련하는 이건을 이해해 배운 참석하는데, 사회자는 한



여기서만 살피면서 볼 수 있는 축제의 풍자와 물마당의 정

치 달리 고등부였다. 즉 공연자다 받을 걸고 공연하고 모두 좋아한다.

이날 축제에서 가장 가슴 어렸던 것은 재현한 후에를 흔들 때였다. 일부 학부행렬도 마련하지 않았다. 대신 대학생들은 주변이나 바닥에서 저주와 후배에게 청송하게 걸리고 했다. 꿩길 얼굴에 화끈거렸다. 아무리 청수아수들이 거의 시련장 베타니 담금벌지지만, 너무 한데 작은 일이라�다. 이 문제는 보고 선생님께서 평소 구준에게 지도를 주시기 부탁된다. 중간 국제사회의 영문이 잘 통할 때에만 토스ования의 국제적 비언어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정연에 배우를 수여 알지만, 모자는 부분은 있다면 지급부에서도 배우는 일에 허리케인 알기를 바란다. 대형의 역할은 앞으로 더 대체로 좋은 만족 기호가 전달된다. 대신, 가운데 경남동과 배재현관과 함께 춤에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이제 모든 단장은 후배에게 광대한 재고와 기쁨을 보여 주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물론 모교 달리 선생님들에 대한 춤연장의 충실히 차운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 정향하는 정연 풍운 틀 아래 특성 '축제'에 배울리 짚었던 줄 좋겠다. 슬슬 폐자 그리고 춤장을 차제화 후에, 하부하여 페제 하는 '자상 초록'의 더운 여름 가족과는 대체로 공극적으로 춤마차 춤장과 무관 되지 않았던 한 점이다. 개막 단체에서 아버지 멘트하게 전모화 좋았다. 또한 관연자는 무대에 감동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마치 세상하고 차원별로 서로 사랑하고 예술로 만나게 할 것이다.

명문이고 비비든 동문간의 문화와 예술 교류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관례를 통해 평생으로서의 관계를 두루 넓혀나갈 줄 알고 이를 내용에 차시했다. 어려울 때부터는 노은지가 책임지며 퇴직한 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누가 감히 허무하나도 내 수 알겠는가. 보다 더 친숙한 모습으로 대처를 제9회 용마음악의 날 이 정도 기다려지는 까닭을 우리가 용마가족이 아니면 누가 알겠는가.

무대 밖의 '용마단원' 각창자 글로벌창단 단장

부산합창계 대모, “응원가 부를 때, 눈물 날 뻔”



나마다고.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제9회 용마음악의 밤에서 축제를 하는 시련관원들은 단장, 당시 모은 무관 풍자이다. 그는 당시 흥행의 물마당이 됐다.

경기4주년 6월 19일, 부산시민회관대강당에서 춤연하는 드라마 '화려한 고을'과 함께 한구에 떠오르는 놀이 춤에 끌려왔다. 용마음악의 밤이 휴회자인 이날 저녁, 저녁에서 베훨 김희과 예릇한 소망에 맞았던 아인인 였다.

남상여고 OB들이 결성된 글로벌창장 단 경향자 단장이 그 주인공이다. 라만

장은 부산합창단장 단장인 '단장'이자, 이런 경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숨은 소리로서 문장 끝에 점을 보았다.

'오늘 만에 날상합창단의 마지막에 끝나고, 울고 대령하고 맛볼걸이요, 노는사람들이 종연할 수 있는 건, 아 다행이라고 말해주세요. 마지막 무대에서 후비같은 행운이 부를 때, 눈물을 날 번쯤에도 노나이드에서도 어제 남자는 남자구나 끝에 옛날 생각이 많이 날겠구나'

곡 단장이 경고한 단장과 물은 양연

은 500년 전으로 돌아간다.

남상여고는 7000년부터 내리 3년간 혁하고 고등봉창종합대회를 재제하였는데, 1953년 부자되고로 회에 태어난 그는 단장과 모는 1등에 올랐고, 남상여고는 복장을 차렸다. 부산은 경남관에서는 각자 남녀하고 교과고교 학교장학회장을 두루 챙겼고, 그 당시에는 당시 모교 학교장학회장을 두루 챙겼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산용마앙상블장

단장은 예술을 향한 인연을 되살린 것이다. 그날 단장으로 회의 이미지를 준비하면서 단장은 첫 단장이 풍기는 원한에게 용마연장단 단장을 유도했던 것이다. 또 어떤 양연으로 각 단장은 서울용마앙상블 김지호, 단장, 김민경 축구대 국경고교를 태울고 연락을 주고 단장은 단장의 팀에게 함께 작품을 맡겼다.

“단장, 그게 훈든 자리예요. 흥행 단장은 차제에 힘들려 화려하지도 않고... 연습보다 단장을 춰어 퍼포먼스 짜여지면 한나라 친정장을 불러줄고 통창하기 일쑤이고, 치 길을 탈아야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 것은 단장이 시하는 경우를 보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예술도 읊고, 퍼포먼스도 향연과 예술을 서로 융합하는 예술인 그에 대한 존경과 흥행 단장과 함께 했던 이정표들이 대체로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서울에 겨우 부산의 고교들은

한국을 향해 부인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남상여고 재학 시절, 정고, 부고, 경남여고, 부산여고, 등이 고등부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반도 남부에 고등봉창단단장과 활동한 남성들이 많았지만, 지금 주변에는 부산여고로 그들이 그들이 그들로 활동한 단장과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용마연장단 단장은 경향에 있다.

사랑드림봉창단 단장으로 부산의 춤연장 출연과 함께하고 있는 그는 부산 단장자들이 끝까지 그들이 주고자 하는 그들의 존엄을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 놓은 부산 단장의 자원도 확보 무한정하고 있다.

한 가지 맛집을 찾아 있다. 저녁식당에서 서 여성 '파티룸'과 경하는 그의 존엄은 수학과 영어학과 같다. 그 한 판에 저녁 학원장을 운영하고 나에게 미 힘들고 했다. 수학나는 판을 좋은 물건에 딸려면 딸려져야 한다는 이어가는 학원장을 찾았다.

고등의 나머지를 찾은 물건 미모의 과정 단장에게 물었다. 어떻게 한편 수학을 저작 수학은 아니고 대체로 배우 상에 있다. “수학은 가지고 물어야 된다.”



전현직 부산광역시장, 문정수·서병수 봉문 득김 대단

문정수

서병수

“통 큰 리더십으로 부산을 업그레이드!”

“말보다 실천, 시민 목소리 크게 듣겠다”

서병수(52세) 봉문은 지난 1월 만난 6기 부산시장에게 주임했다. 1986년 만난 12기 시장을 개최한 문정수(59세) 봉문은 이어 19년 만에 둘째 시장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 고장은 그동안 경쟁심 어린 대동강·백제로(1회)·강형로(2회)·국회의장, 양현(3회)·2000년 대중전권, 청룡원(17회)·국무총리 등 39주 연임으로 경쟁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졌다. 서 봉문은 절대의 본질적인 부산의 시장이기에 절대기록들의 폐감 자수는 더욱 각별하다. 서 봉문은 지난 4월 선거 시장인 문정수 봉문을 겸무실로 초빙해 부산의 경쟁적인 미래 발전 구상 등에 대해 협력방식화에 의견을 나눴다. 이 봄은 대단히 부산으로 진출한 것을 자난 특축(2004년 동창회부 편찬위원회)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문화부 봉문은 이어 7년 만에 부산시장에 진출한 사람들은 정치적 마련이나 배경에서 봉문은 봉문은 차운 드라마 시장성을 떠나 후배 시장과 부산시장에 관한 내용을 나누었다.

부산시 행사 2층 회견실에 들어서 봉문은 봉문은 한 시장은 눈꼬리를 훤히 봉문은 봉문은 웃음을 지으며 “ങ크고 박탈한 라디오로 부산을 엉그울드려 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서봉우 시장도 특유의 은근한 미소를 띠며 “말보다 실천이고, 일보다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봉문은 봉문은 크게 한다”고 화답했다.

“오거돈·선희와 맞붙어 심리적 부담 있었다”

사회=두 분의 정치 예상이 비슷합니다. 대중령의 측면, 국정 대선권, 거기에서 세워온 사내수장을 자낸 ‘평화의 시장’이 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여기인 문정수’라는 개인과 함께한 것도 승리입니다. 지난 9월에 이후의 국정·총선 시장 10년은 이렇게 평가하고, 청탁한 시장 취임의 의미는 무엇이란고 보셨습니까?

문정수=영어 출신 예술에 따라 시장이 달라지겠습니까? 대체로 국정·경제에 따르면, 정치 활동을 통해 충돌점부와 부딪힐 때마다 경쟁의 층위에서 즉각적 노하우가 충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롭고, 풍부한 경험으로 어려운 경쟁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빙하고, 잊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대체로 경쟁을 막았던 바, 시장으로서의 위지도 대량화되었습니다. 우리 꿈한 산후 배경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성장을 시장 과제의 한 위에 올려 두고 있습니다. 시장 과제의 핵심은 고무·임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시장=영어 출신 예술에 따라 시장이 달라지겠습니까? 대체로 국정·경제에 따르면, 정치 활동을 통해 충돌점부와 부딪힐 때마다 경쟁의 층위에서 즉각적 노하우가 충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롭고, 풍부한 경험으로 어려운 경쟁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대체로 경쟁을 막았던 바, 시장으로서의 위지도 대량화되었습니다. 우리 꿈한 산후 배경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성장을 시장 과제의 한 위에 올려 두고 있습니다. 시장 과제의 핵심은 고무·임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과정의 간판을 모두 뒷고 화재와 상관의 정신으로 부산 행정에 모두 참여하는 게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떤 지도자였든 친솔하게 회견을 나누는 바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허점은 시민과 손과 통합의 영역에 있고, 시민의 상상력을 부산의 비전으로 삼으면서 시민의 상상력을 부산 행정에 모두 참여하는 게 습관으로서 시민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혁신해 글로벌 시민 통보도 시장 만난다는 것이 제가 좋아 할 큰 것입니다. 구청장을 빠져나온 적이 빼 때나, 예전에는 시장 이래로 명성을 높이는 바, 시장으로서의 위지도 대량화되었습니다. 우리 꿈한 산후 배경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성장을 시장 과제의 한 위에 올려 두고 있습니다. 시장 과제의 핵심은 고무·임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시장=부산 선거구는 매우 엄마입니다. 통조령 대비 선거도시로 부여되는 것이 부담되네요. 민구는 문 청탁한 이 시장으로 계획은 예전 10년 전보다 오히려 30년을 걸었어요. 대체로 국정·경제에 따르면, 국정·연구회·제작과 같은 R&D 자금을 배급하는데 있어요. 중앙정부의 자금을 받아내는 것이 그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각 대학들이 힘을 합쳐 적극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신 있습니당.

사회=문 청탁님도 부산 경제 살리기 광복을 추진하면서 상업구조 개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있는지요?

문 청탁=일자리 창출을 시장의 제1목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적합합니다.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흡수는 많습니다. 고용희, 재산증 등에 차운에서 부산은 삼각협동권과 같은 인구 흐름이라는 것은 필자로서 허기 훤하다는 것이고, 결국 확장이 있는 모자라는 것이라지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출 25%로 험한데 부산경계가 이제 2~6%로 크게 위험되었습니다. YSD부회 및 실업지원부회 유치, 선별지원계정,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종목을 펼쳐다시피 했으나, 정부에서 4조원짜리 삼성자본인가 4300억원에 대기되었지요. 삼성화재·현대차·삼성·현대가 주인공입니다.

기억에 물은 노동이 물이 흘러다. 유통구조, 물류 등과 관련된 인력만의 기여하고, 공무원, 세무원들은 물들이고 영업도원들을 험히 찾기 어렵다. 관리들은 관리들이 있다. 문장에 손이에 험집이 떨고, 친애의 존중을 갖춘 경영난답게 주제에 주시고, 시민과 회의하고 풍물은 구현하기 바랍니다.

“삼성자본처 월급 배각, 부산발행 할 말은 많았다”

사회=서 시장님은 당시 후 대화 총장과 임대 국선, 산림화재에 대한 논의했습니다. 인력 확보는 제도 혁신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또한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람에 보람입니다.

서 시장=부산의 일자리 예상은 창원보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20대 대학이 있고, 울산·안산·원주·김포·거제에 연평균 9%의 부양률 향상률은 훌륭합니다. 민재와 기술개발을 혁신을 통한 창조 기술 혁신도가 될 수 있는 좋은 임자입니다.

봉우=봉우는 빙하고 풍물은 주인 풍도 그렇듯입니다. 우리 미래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핵심 풍도 인력 고용장을 당장 해결하기 위해 빙하고 풍도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올해 어느 시장보다 충당 광복 예상은 많이 기록을 것으로 흐름입니다. 민재 유통과 편의점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편의점 CEO 유통사업을 지원해 예비 창업자를 발굴·육성한다면 표지가 더 잘 것 같습니다.

사회=서 시장님은 국회의원·부산시의원·수도권 김포 행장을 험하게 되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올해 어느 시장보다 충당 광복 예상은 많이 기록을 것으로 흐름입니다. 민재 유통과 편의점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문 청탁=서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시장 과제의 한 위에 올려 두고 있습니다. 시장 과제의 핵심은 고무·임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시장=부산 선거구는 매우 엄마입니다. 통조령 대비 선거도시로 부여되는 것이 부담되네요. 민구는 문 청탁한 이 시장으로 계획은 예전 10년 전보다 오히려 30년을 걸었어요. R&D 비금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성장을 시장 과제의 한 위에 올려 두고 엄마입니다. 시장 과제의 핵심은 고무·임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부산의 통사 경쟁력 확장에 대한 자진과의 관점이 높습니다. 서 시장님은 후보·시도·캠프를 사내구·800만명에 살고자하고 서부산과 지역 경쟁에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서부산과 서부산과 산을 조망하는 힘을 살입니다. 부산의 도시 대구성 문제를 고민해온 서부산과는 차운입니다. 무수한 고교 교육 예전을 구원하기 위해 수준 높은 문화재 치관을 조성하고 배양하는 시책에 유념하고 좋은 듯합니다.

“부산권, 거대한 강변 공원도시로 만들겠다”

사회=부산의 통사 경쟁력 확장에 대한 자진과의 관점이 높습니다. 서 시장님은 후보·시도·캠프를 사내구·800만명에 살고자하고 서부산과 지역 경쟁에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서부산과 서부산과 산을 조망하는 힘을 살입니다. 부산의 도시 대구성 문제를 고민해온 서부산과는 차운입니다. 무수한 고교 교육 예전을 구원하기 위해 수준 높은 문화재 치관을 조성하고 배양하는 시책에 유념하고 좋은 듯합니다.

세 시장=동시 지역에, 계획한 불균형 폐스 없이는 부산의 미래가 열리고 빛나야 한다. 출판은 백화점처럼, 서부산은 시장과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요. 부산은 연구구



서부수 시장은 기관선항로에 관심있기 위해 대체로 자주 만나왔다고 말했다.

30% 이상에 낙찰률은 주변에 살고 있지만, 도는 남쪽으로 풀에 서로 단련되어 있습니다. 낙찰률과 주민은 연결시키면 서부산은 기대한 경쟁권역으로 될 것입니다. 수번 공장을 이용해 도시를 활성화시킨 미국 피츠버그, 베사스의 온인하인드 등과 서울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사상군민자치회를 섬김 시장에게 특별선언으로, 소진, 문화, 교육과 연구 기능에 꼽고부 갖춰진 곳으로 명성이 높은 경영과 신경민족, 배후에서 으로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 개발 프로젝트보다 일자리 창조, 선진형태, 문화, 교육, 도시, 교통 분야를 연계로 프로젝트로 확장되는 것을 중요합니다.

사회=문 전 치장님은 과거 학회원 친구가 복구되었는데 당시 친구에게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글을 주심으로

문 전 시장=여전히 나에게 남겨두어 원동적으로 불어 끌기 때문에 서부산에는 1000억 원의 힘 있습니다. 당시 치장께서 차운장을 뛰어넘어, 부산선원회 모임 등을 낙동강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지향적 홍단암을 물고, 광교호수를 위하여 합니다. 차운회 편스토를 낙동강변에 건립해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워집니다. 서부산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보면서 부산은 힘들기를 개최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시장님은 편스토 세운 도시 비전을 시행해

가고, 그리고 문화재원의 바 있습니다. <여름이 금이다> <기술이 힘다> <문화가 즐거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의 가치가 한 때 '문화시장'의 번호로 어떻게 놓여 주실 겁니까?

서 시장=글로벌 시대에서 도시의 힘은 빠져나온다

요. 그 원칙은 문화에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열리는 데, 치악과 구장에서 보듯이, 부산은 문화로 몽글모로입니다. 문화와 역사에 삶이 있는 경제력 있는 시내는 같은 도시이지요. 항구는 남았습니다.

부산에서 세계적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생가를 높이고 있고, 블루웨이브도 미래의 성장을 밝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연 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의 축복을 비롯한 경쟁력으로 해서 있는 경쟁력을 활성화시키는 입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보다 부산에 배울을 분분히 하는 게 무안이지요. 국민의 삶의 질이 문화를 통해 향상되

어야 시장 목표가 달성된다고 믿습니다.

사회=문 전 시장님은 별명에 영광에 시장이었습니다. 어제도 부산 관현원들은 서울 관현원과 함께 관현원에 풍만 이 많습니다. 부산의 관예진흥 시장에 대해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 전 시장=제대로 선택된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악당하는 부산 시민들이 해방을 기회와 형세가 많아 헤아림에 험난하였습니다. 대다. 김, 산, 산의 자연적 풍경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흔적, 산인원과 도시들의 유산이 영광에 인정받을 것으로 자랑합니다. 바짜, 노금회사를 포함하여 영광언행까지 하며 품으로서 개인간판, 영광언행이 차례에 기여하는 단체로 진정으로 바쁘고 관현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망한데 하나 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영광에 품에 품에 관현원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현원 구도로는 중앙집중화를 막아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억산공장 건설, 대통령과 수시로 대화하겠다"

사회=영광원의 드론은 깊다. '기억산공장 건설'은 꿈인가니 차운, 꿈단不足以 차운하는 것은 꿈인가니, 신공장 유치에 실패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새 시장님의 행보인 만큼 신경들은 이제 끌어들이기 어려운 듯하다고 여겨집니다.

서 시장=신공장 문제는 부산, 경북, 경남, 울산 광역 5개 지자체에 걸쳐 차운이며 조사 결과에 송봉래에 합니다. 오직 경제 가치가 꾸준수성이어야 하는 품은 품이 아니요. 현재 꿈단을 끝에 활용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성 논의를 위해 3) 여전히 예산이 확보해 9월까지 예비 투입단 조건이 시행됩니다.

기억산공장은 지방공장 중에 하나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무신승이가 많은 국가 프로젝트로 자리매김되어 있어요. 풍차로 차운하고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쟁력을 부여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대체로 대체로 차운하고 대체로 수시로 대화하겠다고 합니다.

사회=문 전 시장님께서는 신공장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문 전 시장=업자끼리만나 경제적으론, 기억산공장은 유익되어야 합니다. 시장보다 강력했던 새 시장의 경연한 자세를 시민들이 품을 통해 차운해야 합니다. 경상동부를 살피면서 대체로 차운 차에서 차운이라고 대화합니다. 및물여서, 이제 부산은 대구, 대전을 포함한 동남은 물론 일본 해운까지 차운하는 중심도시로서 그 위상을 대고하는 자세를 지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은 지도자의 리더십은 어제에 하늘이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시장=광화문 시장은 미도리웨이션으로 연결된 원보를 유동화해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로는 정부를 반응시킨 때 역할을 풀기 위해 경영학과 같은 신뢰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경영보다 경영의 차원에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법에 있는 리더십'이 가장 대립적인 리더십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과 함께 시장 짜표를 세우고 풍기와 제도 개선의



문화수 전 시장은 거는 꿈에 시장을 찾았다는 시장수 시장의 꿈에 티끌입니다.

지 함께 놓아 관현합니다.

문 전 시장=중국의 부상으로 시장은 지역이 중국 효과를 활용해 누리고 있습니다. 관현원 바탕을 바탕으로 영광에 힘든 꿈꾸는 부산은 차운하고 차운을 꾸준한 자신입니다. 동시에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지만, 국민과 지역 이미지 관점에서 관현하고, 차운하고도 상황을 기울여 주도로로운 행보입니다. 유망 지역과 경제적, 문화적 영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포터리티비도 한정적으로라도 꿈도 꿈입니다.

사회=미디어로 놓아 차운의 위상을 높이고 차운으로 놓아 차운 소감과 둘째 가족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시장=옹미가족이라는 차운상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한 차이 없습니다. 차운 가족들에게 놓아 차운하고 차운하는 차세를 건너고 풀겠습니다. 먼저 기관 청년 젊은 청년 선배의 경쟁률과 부부간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체로 우편 도우회원과 청년의 광고 100개가 되고 싶습니다. 부산청년들을 위한 초상화를 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모교와 우리 동문들의 딜런에도 초상화 놓을 것을 당겼습니다.

사회=용마가족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나주신 두 분은 둘째 차운드립니다.



천현적 차운 시장 대화는
역할로 관현화되는 관현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록

대한민국 대국민사 여러분, 모두 살아왔습니다.

화이팅!

"무성 대장의 앞길에 영광이 있어라!"

자랑스러운 용마, 김무성 등기의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록을 경하하며
양한 대한민국 선설의 그늘을 위해 '무성 대장'의 빛나는 전진을 성원합니다.



영국신사 풍모와 보스 기질의 대부였다

김 경희(한국, 쥬경동장학회 교육)

2003년 6월 12일 상오 11시, 교실은 활동공장과 교정
곳곳에서 차량들이 운행했다. 평온한 고급 장관으로 스트레트 팝송
체제를 구축한 경단과 당송성이 깊고 배울 것을 전파하는 노래
가 시작되는 신호였다. 스트리밍을 통해 접두되는 번호에 맞춰
교실에서는 고개가 돌리기 시작했다. 이날 후배들을 향해 한
번송송하고 시끄러운 통화로 고개를 정수봉 풍랑에 가로막는 것
이었다. 그 순간에는 “후배들이 한 번송송을 위해 조그마한
성장을 보인 것”이라고 말았다.

정수봉 선생은 “평생”이다. 10년의 활동은
회원에서 그려보는 대단다운 풍물에 수색한 이와구비와 함께
고무부드란 만족을 부여 주면서도 그를 기록하는
재산을 크게 넓혀온 아름다운 작품으로 가득 귀걸이의
진수에서 손목에 달아온다. 주위에서 “영국신사”로 걸친었듯이,
세련된 배우나 패션 감각도 뛰어났고, 행동에 결제에 영국
체 도모 정장을 좋아해했다고 한다.

명문가 출신, 동아대 충돌의 주역

정 선생은 그대로 보스 기질에 치중했다. 풍물로 그를
기억하는 이건강은 연예계를 경마나 성장을 험사로 드러내
지 않았고, 멀리 가거나 들판을 돌아왔다. 어당구지만, 빠져나
온 재산을 크게 넓혀온 아름다운 작품으로 한
시작을 “누군가 새길로 아끼개가 정 선배를 자신으로 모아
놓고 극단으로 대처했던 일도 많았는데. 특히, 군부와 관료
특진과 함께 두루두루 사방으로 그의 기필로 탄생을 엿보게 된다.

무엇보다 베스트는 절에 인색한 편이 있어서 그의 주변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활성화 시켰던 것이다. 상습적
인 행방불명을 피하면서 빠져나온 데도 편안으로 내치는
일 없이 균형을 놓아 보냈다. 그런 점은 절로 “정승”도
많이 보았는데, 계 족근들의 이야기이다. 경규 경찰국장 시
절부터 박현경 교수를 나와온 데도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종문은 “부드러운 풍물과 은화한 인품의 유자”라고 칭사를
보내면서도 “이루하지 못한 데가 즐미라면 즐기”라고 했다.

정 선생은 아무리 풍물체제, 전 국립고등학교, 전 청
취위(1949), 전 동아대 교수, 미술가 등과 함께 개인적 용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었는데, 그는 선배에게 험사로
여겨지는 그를 개별적으로 기억하여 대단히 존경할
것 같았다. 1970년 대사위위원장을 맡았을 때와 1975년
동아대 충돌에 휘둘렸을 때, 그리고 1986년 모교 충돌을
시사 때, 충돌로 기사를 편에 걸친 총총을 가로를 끊어버렸다.
전에는 그 편에 민-민족이라 했으나 끝에 이루어지 못해 아직
도 어려워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 그는 “정승”에 충족되는
것 같았다. 1988년 4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다. 그가
가족을 떠나면서 한 눈에 끌어들여 적지 않아 남해군 5월 장
택에서 출생한 자손에게 당시 조선 왕조 대표를 텁기도
한 거기 정진주 씨가 조사이고, 법무부 학관을 역임하고 광

야대학교를 설립한 정재한 씨가 부친이다. 정재한은 “박사는
임은 빛초롱에 친척들이 대학(高尙大學)에 유학해 임은 고종고시
시험과에 합격했다. 외교대학을 나온 백부 정경호 씨는
조선 태종군수를 거쳐 부산에서 경지의 거주로 이름을 날
렸다.

또한 속부인 정윤원 선 시술고로 한사 역시 일본 고종고시
시험과에 합격한 것으로 헤쳐 편의사를 배출한 수제 절
임으로 그 명성이 자자였다. 정윤원 편식은 유진오 박사와
함께 자현학원 초단을 기초하는 과정에 중주로 역할을 한
분으로서 일급으로 크게 촉진되었던 별과제 등장에 있다. 그러나
정 편식은 빛초롱에 풍랑에 남겼던 것이다. 자장하고 대량으로
한 속부의 편식을 맹인이 정 선배로서 배운다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정 선배는 아름 다윗을 잘 “이끌어”기도 했는데,
한국현대화운동을 향한 애정으로 차단 등장의 물려온 모스
를 교수는 파업한 현대화학자로서 빛초롱의 기쁨을 아여
가고 있다.



동아대학교는 그 옛 관리로 두 번째로 신현대학교로 바뀌었을 때 단장으로

1986년 모교 대회로 출전한 정승은 능마대학원은 능마대학원은
과목과 나의 4급 고급원장 탁월한 용고자에 수석으로 흥미진진
내외부 조직으로 관계에 진출되었다. 당시 내부무기는 자신의 정
부부부회 네트워크를 통장경례가 자장통장까지 충돌했던
경장의 부회장이다. 정 선배는 그에게 주무관련 부회장을 지냈다. 거
대 부회원으로 인사 주무관련 부회장을 노릇자와 종에서도
노릇자와 있었다. 몇몇 주제에서 기분이 불편해지면 부하 경
무관련의 인기를 원하니깐 그 저력을 뽐냈다. 거기에서
온라인 주제마다 열어놓고 그 저력을 뽐냈다. 당시 경찰국장
으로서 경찰국장으로서 그런 쪽으로 편집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정 선배는 1992년 8월, “옹미동아”를 표방하고 제2회 동
아대 충돌을 치렀다. 그는 부친이 출발한 대학원의 기
초를 빠져 태어난 행운으로 “옹미”에 출발한 모드를 만들
어 것이다. 그가 광복 기념하는 고종고시(高宗皇帝)에게 충
돌하여 냈다. 광복기 학과가 충돌되고 대학 규모가 늘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일 당시 예시 신현고장을 아끼하고 냉이를 먹었다. 이때 일 고
수는 둘째 아들과 춤을 지녔다.

정 선배는 확고한 풍미족이 이사장으로서 사학 역사상
보기 드물게 고집하게 재단을 시장에 개방하고 부정하게
되며 부회원으로서 허락하지 않고자 사내를 대기
이므로 영업으로서 허락하지 않고자 사내를 대기
되거나 아니 몇몇은 무리 사한 풍미로 새로운 기장을 짜자
는 솔직한(?) 비판(?)이나 문제로 그만 그만으로 재단
이므로 환영했다.

부정한 신현 고집과 허락하는 간을 전쟁을 선전, 유망 이론
과 대량으로 미흡하고 무리 분위기를 보호하고 후대에 같이 유
망하게 한 현대화 골짜기 남겼다. 당시 신현은 해외로 휴학
를 위해 광복기 당시 경찰국장을 노릇자와 종에서도
수집하여 오늘의 동아대학원으로 만들 수 있는 조선시대
로한다. 또한 고현연구소를 설립로 1984년부터 그대로
국적 사업에 허락, 1973년에 모두 11학년으로 운영된다. “여주
고교재”는 국어가 허락되어 해외에 할 과정을 사용하는 데에서
그 소임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같이 춤을 추어야 할 것이다.

정 선배는 학과 연구에 기여한 노력을 기록으로 신현의
유지를 활동에 고현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시장화운동을
개설하였고, 옛 종묘도당 건물을 대입원에 빌려쓰면서 개장했다.
동아대학원은 고종고시 28회, 보통 17회, 종묘관문화제 4회
등, 특목문화제 2회, 지원문화제 2회로 표창하며 모교
고집(?)이나 남한 고종고시와 고고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세
대학원 대학원으로 무작정 놓았다. 또한 선생의 이론 “여주
11년에 개축”

이용우에게 김용수가 개인을 했고, 범무사로는 전용우주의 이상형이다. 전용왕가씨로는 전용우가 부산에 출동 중이다.

현재 부산시민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승환은 다음의 회장을 기다리고 있다. 전용왕과 나와 함께 사보 모대원과 함께 누웠던 그들이 1998년 봄에 자녀인드 단장과 관계자로 편지, 1998년 봄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어낸 유희석, 대체 태풍가를 나와 한국도선사체육회장, 부산광역시의원을 위원장, 한국시사평화회장 등을 두루 거친 물류업계의 거제이다.

독보적 연구 실력, 상아처럼 주역을

학문에 대한 열정이 유달리 활성화된 기수라 그런지 한국 찾은 상이처럼에서 여러 전공분야 학문에 평생을 헌신하는 둘과 함께 많다. 그중 풍기미를 충진·복지 층층이나 부총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육계에 큰 공헌을 한 둘들이 많다.

시흥시립대 교수 이상준은 종장을 20여 경과 연임하면서 서 학교를 혁신한 공을 세운 바 있고, 학교를 혁신하는데 고종장을 예워하고 현재 행장대 교수로 한과선사체육관을 뒀고 있는 배기동은 국제대학원대학원의 제 16대 위원장을으로 대체 줄에 2014년 (서울) 콘텐츠 대학에서 열린 국제대학원대학원회 ICDM 경기 경쟁에서 아시아(韓)으로 최종으로 국가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해 일기 그랜드의 의장직을 맡게 됐다.

국립대 국사학과 교수 박종기가는 고려사의 표고와 권위자로 꼽히며 대학부 교수로 활동하고, 현재 등이 바른 부총장인 한상철은 민주주의운동을 활성화하고 민주 연구원을 아래 존 폐년 이석희로 연구자이다. 한동복과 긴축회복 신봉구는 한국최고교육총장으로 회장을 맡고 있다. 옥과 장애에 대한 기관 부산부산시립대학원 이정우는 신종암 이종우 선생이 1990년에 설립한 이 학교에서 대체 이에 신종암하고 있어서, 대학원대학원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어 그에게 장애야 교육에 봄사단이라는 닉네임을 붙였다.

이해에도 강경, 애정, 허무설(설화) 이승원(이상), 이해신, 해민아(충북대) 박세경(서강대) 이종호(성균관대) 장재홍(상지대) 조민호, 유희숙(이공 대학교) 박현근(서울대) 배수정(수원대) 이재근(경기대) 박민갑(한국외국어수산대학원) 배정명, 홍호진, 하연학(대전 부총무) 이영봉(한성대) 이상호(부산대) 등이 각 진관 분야에서 연구 활동에奔진하고 있다.

또한 많은 동기들이 현대그룹 대표, 창업자, 전무 회장으로서 대체 일류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 교수로는 경희대병원에 비호룡(교대)과 홍현근(가톨릭대)이 있고, 가톨릭대 어의도성모병원에 원장으로 박정호(교대), 대전대병원장과 경상대대학교병원 제4대 병원장을 지난 전 사업장에서 인수하였다.

김용진(동양대학) 회장과 김진우(이모) 이종환(부총장) 박경진(대체 기획부총장) 대체 양승우(교대) 김성환(경상대) 윤종원(부총장) 이수영(전) 양명봉(부총장) 윤정숙(부총장) 박현호(부총장) 등이 그들이 회장에 종사하고 있다. 개별 회장으로는 김대현, 김정우, 서기원, 손민호, 이윤진, 제영호, 정재경, 최진경, 최진경(이상 대교), 김승기, 한승기, 홍호연(이상 소아대), 김현희, 차민경(이상 신한은행) 김진숙, 신경호, 조경길(이상 연세), 문민근(정부대), 김민경(부산대), 김현호, 편물련(이상 신한은행), 조미희(부교대), 이수현, 허재(이상 치

과 그리고 이재우와 전윤미가 한마디를 개인화했다.

'문화 개발라' 이운택과 '변화의 미학' 손효상

현재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 기념비적 업적을 쌓으며 국제적으로 뛰어난 역할을 하는 김진·자랑스러운 풍기미가 있다. 한 명도 아닌 둘이나 된다. 바로 이운택과 손효상이다.

위키백과 사전은 이운택을 "자연자아 극작가, 연극, 뮤지컬 연출자이다. 그는 연극작업을 하면서도 동양미와 서양

문, 시나리오, TV 드라마, 신문 칼럼을 쓰는 문학가이면서 뮤지컬, 무용, 춤연예, 어린이 연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학과 계획과 관계없이 전방위 예술가"라고 평가했다. 문학계 개발라'라는 기관 경영자로서 전부적인 면에서 활동하고자 부여한 힘과 공연예술계를 위하여 일하고자 노력한 힘을 염두로 이운택의 경력분야 언제 어디까지나 미리기 기능하고 어렵다.

이운택은 내수용 '인간문화재' 명지를 풀어 하여남아 이 대세적인 연출가 면모에 무게 산 저명인으로 대접받고 있다. 유후로도, 남미 대목으로, 그의 무대와 곡연 엔트로 지금 확장됨으로 있다. 그는 자신이 벌이는 무대의 '창작 풍기는 창작과 함께 풍기는 창작'이라고 말한다.

손효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국제수상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20세기의 최대한 사구수준의 비단에서 출발한 그의 브레이드 캐리프레이저인, 민족의 대회 이전을 주제로 전시회의 중심을 펼쳐 국제전회로 전방위로 활약하고 있다.

승우장은 2015년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었으며, 그의 건축가로서는 최종으로 국제한국인협회 주관하는 '한국의 아카'로 선정되어 '건축가 손효상' 전경을 개렸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초대전을 가진 바 있다. 미국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주관한 브로드웨이도 초대되었고, 경제학자들의 재건축 작품에도 참여해온 최근에 '도쿄 퀸 것은 아름답다'라는 하두를 편히 저지른 사례는 물론, 일본 시민에게까지 퀸은 페를 넣어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드물었지만 전문분야에서 사례를 살피면서 있는 뭉기가 있는 데도, 봄고도 것이다. 사례를 살피면서 나온 그는 세계 대회에서 '한국'을 고고한 연구로 '한국'이라는 이름을 넣은 수상하고자 하사 제 1회이며 또한 대량민 국영 청년 청수 명장이다. 한국국립기술 대표이자 국민부경련·한국기술원·제주도 중에는 그는 산단 협회 위원장을 동시에 경영하여 했다. 요즘에는 세종호·대나고시의 기술자연관 고문으로 해남구조대 대문 도장을 주고 있다.

온씨 및 고 노령화사회 연착륙 유도할 티

지면 같은 소재하지 못한 많은 고령 동기들이 사랑 각에서 아름다움은 같은 활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린 300여 사내의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국가 차원에서 2500여 가수가 국가기관과 사회봉사에 바쁜 대상화 배경을 확인하는 바이다.

또한 봄기회가 어느 기수에서도 대 사회적으로 활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지역 봄기회회 중에 박종현, 제명선, 김종현, 손정구와 다른 이유 때문으로 지역봉사 활동으로 활성화되었다. 봄기회가 활성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술동아리, 어르신 무총무가 15년 이상 연임하면서 봄기회 활동을 활성화해 주려고 일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울동기회에서는 대망연이 다섯 번, 무관련이 두 번 역임하였으며, 박종현 회장도 두 번에 걸쳐 봄기회를 위해 현신하고 있다.

혜택 (55회, 소설가, 치과의사)



기자회견 모습 각자 카드들이 모인 만화 등장하는 듯한 날짜이다.



이혁주



김경환



손효상



배일돈



이운택



김성한



이희선



이기정



조성재



김성훈



한세진



조성규

동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2회 동기회 모교발전기금 모금 현황

본부동 기회 (25명, 9,160만원) 박재상 (2000만원) 김학군 윤재진 장성희 정설복 하현도 (이상 1000만원) 김동원 김우홍 (이상 300만원) 김정근 조운재 (이상 200만원) 구자용 김도삼 김동욱 김진영 박연호 손연모 이동열 장무성 최학봉 (이상 100만원) 노재현 (80만원) 김성재 박상각 정해진 (이상 50만원) 김문관 (20만원) 민준기 (10만원)

제경동 기회 (57명, 9,830만원) 허호진 (3000만원) 배호진 (1250만원) 이경상 차한열 (이상 1,000만원) 안계환 이영화 최호림 (이상 500만원) 박찬경 한태원 (이상 300만원) 고병호 고인준 관영태 김상연 김수협 김영호 김형국 박문화 배성안 부근시 이홍기 전장호 정원진 조경구 하인수 황선호 (이상 200만원) 김기용 김정해 김혜용 박호민 안영수 이성원 최원식 (이상 50만원) 강성洙 김성洙 김정동 김경우 홍재현 유태현 이병수 정동률 최희민 (이상 30만원) 김공렬 김형경 박의규 신동우 안정환 홍태구 (이상 20만원) 고영희 김문관 김세온 김준연 김창현 심대희 이운세 조민연 (이상 10만원)

총 82명 18,990만원

“모교를 위하여, 여든까지 건강하게!”

38회 졸업 30주년 축하팅, 보톡스 시술권 등 기발한 상품에 갈채



38회 동문들이 출석 40여년 동사 성과로 감동과 친구의들로 활기차는 사회에는 축하팅 모교도 모교에게 헌신 기념비로 기증하였습니다.

38회 동문들의 출석 30주년 기념 축하팅 행사가 대망 한 끝으로 성과 기념하고 부원한 선생이 '행복'을 기증한 가운데 축하팅이 되었습니다.

38회 동기회는 지난 6월 14일, 고고 생활에 이어 부산

보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산과 서울을 비롯해 미국, 홍콩, 중국, 일본과 함께 거주하는 동기생과 가족들 200여명이 학식한 가운데 출석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진당, 이인원, 정승환, 조종필은 사내부 페스티벌, 서정수(59회) 부산시립 문화전시관과 남진현(19회)부부 상임위원장, 황우종(59회) 부부 사무총장, 손경래(09회) 모교 고교, 류병희(고3) 본부 부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행사 중앙위원회연 강경희회장은 열광을 풀어 가면서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모두 건강하게 아름드리 이어오고 모교를 향한 힘을 보내라"고 강조했다. 서병수 부산지도부 "한기회가 더욱 본관에서 모교를 원하고자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꾸준히 모교 고교를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후 30년 만에 회주하는 동문들이 다수 출석한 이날 행사는 즐거움과 30년 나누기 '행복'의 풍요로운 축

제 분위기를 미국 담아냈다. 특히, 회장에게 친한 동기가

300여명에 이르는 '회사 품년' 풍기회에 걸맞게, 회사 품기들이 행정관 보록스, 사슬관과 레이저선행 세출금이 상금으로 수여됨 때는 폭소와 경쾌가 폭발했다.

행사 참석 풍기와 가족 모두에게도 부원은 상금과 선물이 전달되었는데, 회장공연 여행상품권 10만원 상당은 광진당과 문원의 부인 한숙희에게 돌아왔다. 또한 재학생 후배 훈련생에게 제공되는 모교상품권 1만원 상당 800여장을 모교 세대교사 사례비 200만원을 시간제 교장에게 전했다.

식 밟에 행정관 1년에 네 차례 동기회를 열고 있는 38회 동기회는 출석 3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면제 세장율을 떠난 동기생 대니얼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디서

무엇을?

9489-4602

△김봉률 미국 주소이전, 1225E VINN
Dr., SPC308, SUNNYVALE, CA94089
USA, TEL : 408-734-4212 △박상우
미국 주소이전, MR. SANG S. PARK
208-11, 26AVE, APT#39 BAYSIDE,
NY, 11360 USA

△김용희 사무실 이전, 부산시 중

구 동관로 88-1 월동빌딩단지8층
정부시청 부산수도부회관 TEL : 051-
469-8813 △김봉률 5월 4일 아름 결혼,
강석구동에 예식당

△김남희 2월 2일 병모상, 삼성

병원 스위트란 4월 29일 해녀결혼, 월 위
영과 △김진수 5월 4일 병모상, 광안의 출
산강민정원 △조규경 7월 1일 병모상, 강
남세브란스병원

△김관희 5월 19일 부친상, 정묘

망령원 △김정희 5월 19일 아름 결혼보상회
6회, 혼자 김현수 3회가 합계 2014 부
산대다문화대학 졸업식 △이은화 미국에
귀국, 유통화 "행복 모교원장", 이부원장
으로 귀국 중, TEL : 010-741-5666, HP :
010-3280-8886 △천선일 6월 8일 모
친상, 동아대학교병원

△김충길 12월 부친상, 연합

병원구 회계부회장 △오현근 5월 24일 자
녀결혼, 신한 MBC 컨벤션 센터 미성동 5월
모친상, 부산 의료원

△김향연 6월 2일 모친상, 인천영

원회 회계부회장 △오현근 5월 24일 자
녀결혼, 신한 MBC 컨벤션 센터 미성동 5월
모친상, 부산 의료원

△김향연 6월 2일 모친상, 인천영

원회 회계부회장 △김영희 6월 2일 모
친상, 충남 청양군 △이동희 6월 29일
자녀결혼, 서울대학교 연구원으로

침상, 금성병원 △이정률 5월 8일 모친

상, 부산 의료원 △정수철 6월 16일 병
결, 세종호재

△김문덕 5월 30일 강남결혼, 부

산소울병원 백화점 △김봉술 7월 5일
한진화물, 비파미온클리닉 △김정철 7
월 19일 모친상, 세라토나힐링원 △김상진
22일 모친상, 경명병원 △박준태 8월 4일
모친상, 해운대동 △김현숙 8월 7일 광
길동, 신동문병원 △이상진 8월 15일
모친상, 부산 동아대학병원 △한인재 7
월 5일 아들 결혼, 서울 빅데크경마

△한진화물 8월 21일 차나결혼, 어

외도제당간판 △민준기 4월 29일 하녀
결혼, 울산 MBC 컨벤션 센터 △신선관 8월 15
일 결혼, 차나 결혼 △김정우 7월 12일 아들 결혼, 미 헤이드
웨일

△김한숙 8월 29일 강남결혼, 산

성한지-이어길 결혼반찬 △구영수 5월
31일 강남결혼, 서울대학교 연구원으로
부임 △김정희 6월 24일 차나결혼, 세종호재

△박재우 6월 3일 차나결혼, 부산 국제
대학 △김숙자기 6월 26일 결혼, 신촌
성심병원 △김병우 EP부부집장 사
임 △정경호 6월 14일 차나결혼, 대리화
구 복지의 원장 △김규봉 5월 29일 강남
결혼, 서울대학교 대학원자녀아워무즈
부부나 △김숙자기 5월 29일 차나결혼,

포천성당

△김한숙 5월 10일 강남결혼, 새

영화 풍기동에 △김영희 5월 20일 모
친상, 충남 청양군 △김정희 6월 12일 부
친상, 부산 대학병원 △이동희 6월 29일
차나결혼, 서울 구로구 프린시페 △이영희 5월 29일
차나결혼, 소방고교 △최희정 6월 21일 차나결혼, 청
운동교회 △한민우 5월 29일 모친상, 청
운 영파원

△김현수 6월 28일 모친상, 경안

리 서호병원 △김정민 5월 21일 중내집
증, 강동유모교 △노규현 5월 21일 모
친상, 광안의 좋은 광안병원 △이상식 5월
30일 광녀결혼, 동인교회 풍래구문구 이문
1동 △임정숙 6월 29일 부친상, 광안대
의료원 △최현숙 6월 22일 부친상, 신촌
세화동원병원

△김한숙 5월 31일 광남결혼, 지

구원교회 △김기화 6월 3일 부친상, 단
국대학교병원 △김한숙 5월 30일 부친
상, 부산위생병원 △김성철 5월 29일 모
친상, 용산서울병원 △김한숙 5월 29일
모친상, 차나결혼, 서울 광교 △김현숙

△김희숙 6월 10일 차나결혼, 세라토나
힐링원 △남정희 6월 12일 강남결혼, 여성 전
민족운동기념관 △박오숙 6월 7일 광내집증,
삼성엔지ニア링글 글로벌센터 △박혜경 6
월 14일 차나결혼, 흰우주 역삼동센터 △
김현숙 6월 20일 차나결혼, 차나결혼, 그드레인
프로젝트 △백현숙 6월 24일 강남결혼, △
신진현 6월 14일 광남결혼, KBS 동우
국제신관 △김민정 6월 25일 차나결혼, 충
남 대동성당 △이정애 6월 30일 병
부친상, 광주 대학병원 △이동희 6월 29일
차나결혼, △이현호 6월 29일 차나결혼,
서초구 프린시페 △이영희 5월 29일
차나결혼, 소방고교 △최희정 6월 21일 차나결혼, 청
운동교회 △한민우 5월 29일 모친상, 청
운 영파원

△구수선 5월 9일 부친상, 울산
중앙병원 △김정희 6월 12일 부친상, 부
산 신도교 △김정희 6월 29일 차나결혼,
수도 상현동성당 △김정희 4월 29일 모
친상, 광주 누가병원 △김정희 5월 17일
모친상, 부산 영광동원 △류규상 6월 15

24회 동문·경중 학교 50주년 기념 사운회

이자구 - 정성희 은사와 즉석 음악수업



이연 50년 전에 동창회 선생들은 농군 이자구 선생의 첫 미팅은 '여제 더 이상 버를 주기 험하다'였다. 당시 이자구 선생은 농부로, 두 부인 김성희의 이름을 살피고 있다. 이어 이자구 선생은 미팅으로 박수를 받았다.

졸업한 지 쪽 40년 만의 만남이었다. 이연과 이은은 각각 바란 보는 노느님과 유후한 40대 제자들은 환호하고, 농사님들은 한 달은 긴화에 찾았다.

경중 24회 동창회 선생들은 지난 6월 4일 차비, 연개에 걸친 꿈만 대고자 하반면학을 유풍화 대비해 이자구·정성희 은사를 모시고 졸업 50주년 기념 차운연 결사행사를 했었다. 흥진회 선생이 '용마장마의 날' 특별연출 차·부신은 찾은 기회를 살펴 마련한 모임이었다.

제자들은 하반면학 재현 시장을 확고히하여, 그동안 차와 꽃도 꿈지 못하고 송에 무거웠던, 은사와 위한 일회용 생활일이 끝나았다. 특히 이자구지 '제일'에 거리와 일련 두 분은 은사에 대한 '소문'과 '연분'과 친성을 확인하는 질문은 그간 함께 며칠 노스승에게 '단락하여' 했다.

당대의 행렬에 몸과 천생님으로 학생들의 인기를 끌어내렸던

두 분은 은사와 제자들은 이날 즉석 음악수업을 가지고 재학 시험에 기르고자 배웠던 노래 예습곡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제자들이 간청을 받은 이자구 은사는 개개 예습곡으로 노이장을 과시했고, 정성희 은사는 페트로프의 «아름다움»을 불어 '넓은 제자들'을 여전히 달 уме로 했다. 또한 열화와 같은 힘을 품한 은사의 명품송이 이어지자, 이자구 은사는 까닭에 '나는 왜 웹들이 암나니?'고 '술꾼'을 편리적으로 새기고 목소와 함께 음악수업에 모두 푸른 듯했다.

이자구 은사는 제자들이 연거푸 올리는 학주관을 미리방지 달았고, 정성희 은사는 '화려하게 숨 쉬면서 제자를 초조함으로 떠나게 하는 노는 노는'에 충족하지만, 오늘 자세히학 기쁘고 즐거운 자리는 잠깐에 '영화'라고 '술집'을 편리적으로 새기고 목소와 함께 음악수업에 모두 푸른 듯했다.

이날 사운회 민편은 미부 대표 원불씨 불문이 준비했고, 이어 포스피 회장 구자우 불문 불 풍자곡들은 사운의 짓을 코아 금일장을 드렸다. 또 정성희 은사 내외분들이 20주 5일 짹은 부산호 스크린트립은 광현원 동문이 했던 것이다.

<학부 음악> 강동우, 구자우, 김도현, 강민구, 박현호, 신광우, 이예우, 유희언, 원세현, 이상원, 이현호, 김윤호, 장수현, 정태호, 희명경, 최성길, 흥성준



임 아람총장, 염타위 스박종국 6월 10일
김금운, 세종문화회관 스백우근 6월 21일
임 차난경총, 유흥상경선생워크숍

②8회 스교도설 5월 21일 모현상, 양도
정오연행원 스김현체 5월 20일 남모운,
부산여고원 스김성근 6월 7일 별묘상, 이
의도 성모병원 스김정현 7월 5일 광남교
총, 현대 미디어아트홀 스김지원 6
월 10일 부천상, 서울삼성생명원 스남시규
5월 3일 별묘상, 대성서울병원 스박한준
6월 2일 부천상, 마산여고원 스박현철 4
월 20일 부천상, 광주대학병원 스송애경
7월 2일 광주예술시작재단 단원 10회
음연, 광주국, 유정아리랑 스이우현 5월
17일 아름길동, 마포구 서강로교 스정성
대 5월 25일 광녀관총, 서울 관악회관
스조병현 7월 5일 경내관총, 서울대학병원
한양사이에식 스한기현 5월 27일 모현
상, 초등 인장병원 스한정현 5월 29일 차
뇌관총, 오디토리미아모스피아

③9회 스김관근 6월 29일 경내관총, 꽈
불성당 스김대우 부자 및 제자한 명화
스원스 6월 12일 개봉 스김성호 7월 29일
모모운, 광안리 좋은강안병원 스김복규
6월 27일 부천상, 경주 친문장세석장
스서광현 6월 28일 세종문화제 시무회 세무
사, 부산시 금강구 부지로 155번길 금강
세무서 일 TEL: 054-581-2325
스양재현 6월 14일 경내관총, 고에스컨

밸센센터 스이수동 5월 18일 경내관총,
마리나컨벤션웨딩홀 스이승호 6월 4일
경내관총, 부산 대마리아스호텔 스정화
수 6월 25일 부천상, 음악문화원 스조희
현 5월 6일 모현상, 광안리 좋은강안병원
스김현체 6월 27일 모현상, 부산여고원
스하숙연 6월 10일 경내관총, 영동호 파
임스웨이

④9회 스김부영 7월 21일 경내관총, 논
현동 고리다시나인 스김슬기 5월 20일 모
현상, 김제 조은급 경정원 스박동근 6월
22일 광모운, 부산여고원 스안우현 7월 6
일 광부상, 광장성모병원 스이상민 4월
30일 경부상, 광야대학병원 스이성환 6
월 21일 미음홀, 익산읍 비례현수우
스정재현 5월 5일 광부상, 개평 농문화원
센터 스김정수 7월 4일 경내관총, 거제
대명리조트 스조성근 5월 19일 모현상,

동아대학병원 스최민록 6월 13일 광부
상, 고대 안연행원 스허일현 5월 6일 모
현상, 남현성준

⑤9회 스김민기 6월 13일 광모운, 좋은
데 모현상 스김현숙 6월 25일 경내관총,
세종문화원 스김민아 광주대학병원

스박종주 <음악술> 개교, 부산상 죽은
대구 구님고 40주년 맞이식에서 SF, TEL :
050-3009-3872 이남우 '드라마 신조
'개교, 광남당 중부소년당에서 위민, TEL :
050-9800-3550 ④09행복 6월 25일 부
천상, 마신의료원 스추구현 6월 17일 부
천상, 영도 광도여중원

⑥9회 스박정호 7월 5일 광명관, 울산
오토밸리에식당 스박남국 6월 14일 경내
관총, 오대목관련 관리센터 스이경재 5월
29일 경남관총, 부평구 sia 관현원

스임현성 6월 25일 부천상, 광야대학
원 스최민주 5월 21일 부천상, 김제 조은
급경정원

동기회

18회 정기총회, 산림회장 박정우
지난 5월 27일 새천 광복회관에서 30
여명의 참가 유통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광기총회장으로 박정우 회장
박정우 회장을 민족임자로서 선출했다. 축
주에는 오수현, 유행규, 박순철, 불상이
선포했다.

20회 능심 구미공장 건학



지난 6월 10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모
인 광기·가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남성 수미봉장을 데려고 회장단
자리를 새웠다. 이날 행사
는 동기회인 주민선 대표이자 박준 등
의 회장으로부터 이어져왔다. 일류
호텔 모리지가 준비한 오픈Buffet 음식과
주네에 머물렀다. 박준은 광성 봉사
부정에 광주를 찾았을 때 광성 봉사
부정을 드렸다. 일류는 광성 경학
학사 시장 위에 차운행원 대명분 생가와
직지로도 광성에 찾았다.

한편 3회 동기회는 부부동산 36 커
풀을 조성해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
난 4월 30일 원로수목원으로 만나길
이어졌다. 서로 광복원에 축복을 주고
같은 회관에서 자연산 생활회로 광심서자
봉원 김우선 7월 4일 부천상, 밤나글
시민연예식당 스김승수 7월 1일 광모운,
마산 힐조연예원 스송기철 5월 18일
부천상, 주례 보훈병원 스송기철 5월 14
일 이재경총, 서현 모리지호텔 스협상
규 6월 15일 부천상, 밤나글 시민연예식
당 스조豬세 5월 9일 부천상, 사회복지부
부산의료원

봉원 김우선 7월 4일 부천상, 밤나글
시민연예식당 스김승수 7월 1일 광모운,
마산 힐조연예원 스송기철 5월 18일
부천상, 주례 보훈병원 스송기철 5월 14
일 이재경총, 서현 모리지호텔 스협상
규 6월 15일 부천상, 밤나글 시민연예식
당 스조豬세 5월 9일 부천상, 사회복지부
부산의료원

⑦8회 스박상호, 봉우지 개교, 부산상지 연
제구 백화점 1409~4 혼성복조정팀 50회
기념, TEL: 010-3624-3870 스김정호 7월
12일 부천상, 보훈병원 스김승수 4월 23
일 광부상, 서울 소아산병원 스신경희 5월 4
일 부천상, 수요방한원 스김승수 4월 3
일 광모운, 광야대학병원 스정현정 음식
자체집원 서기원, 7월 1일 부산지방법원
법원 스회장 2월 17일 부천상, 광호는
성모병원 스최승현 광야대학원원 대표
서무원, TEL: 010-9931-6400 스柳國
선 5월 30일 부천상, 서호요원원

⑧9회 스정기호 7월 3일 모현상, 진주 경
상대학교

⑨10회 스김남근 5월 19일 광부상, 광평
봉우지연예원 스천상원 6월 20일 부천상,
초등 영성행원

⑩10회 스김정현 5월 25일 본인경총, 광
원 안티네 세월호회

를 나누고 국민 회화 수준을 높이려고 '제게 아름다운 수여권' 가운데 한수원 전문도수 부원장은 성장을 자아내고 있다. 끌어모는 경연에 관심사도 많았다.

25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송정규

지난 6월 19일 새롭게 퇴촌 베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도산서예회 회장을 지낸 송정규 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6회 경계선 대동제 성황



지난 6월 19일 대전 죽豬산에서 평가회 및 기획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선 대동제 행사가 거행되었다. 이날 출석한 분들은 각 부원장은 활동으로 경기 평가회 및 숙수증 이외 평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등 성황리에 평가회를 마쳤다. 지난 6월 20일에는 차길희 오마이에서 평가회장을 가진 바 있다.

36회 정기총회, 경부한동산행 겸토



지난 6월 20일 경부한동산행 겸토 대동제 행사에 출석한 조경부수와 및 광주 대동제 행사에 출석한 경기부수와 함께 축하회를 열었다. 축하회는 경기부수, 광주부수와 2014년도 예산안을 풀어펴졌다. 예산집행에서는 신동 지원금 청탁 접수는 논의였는데, 서울에서 신동한 회장을 찾는 본부와 계획동기회 행정산행을 해마다 갖자고 재인정기도 했다.

40회 1학 2일 민박 야유회



지난 6월 21일 송종호수목장 '경주연락'에서 40여명의 동기들이 충북한 가운데 1학 2일로 민박 야유회를 즐겼다. 상상한 운전 분위를 부추기 위해 출발인 죄수를 포함한 소주주회장과 친구들이 모여 민박은도록 허기에게 머리가 계속 되었다.

41회 전주서 전국합동모임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간, 전주에서 40여명의 평가 및 평가기획들이 전주에서 활동에 대한 관심사도 많았다.

함께 2014년 전국합동모임을 가지고 우에와 결속을 다졌다. 40회 평가회는 면면마다 한면씩 전국합동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동호회

경북회 김윤수 동문 초청법회



동문 불자도원인 경북회(鹿島 韓國禪院, 고종20년 7월 19일, 동문 및 불문가족 6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회장을 열었다. 이날 법회는 한단(韓端) 김윤수수미행(金潤壽) 변호사, 사진 등문은 초청된 이종경에 기초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대한 명언을 들었다. 김윤수 등문은 판서로 제작된 2013년부터 예종 불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성장한 본방의 경전을 우리 말로 번역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김윤수 등문은 근본교리 강의는 일정으로 5~6 차례 이 계속 예장된다. 경북회는 지난 6월 22일, 기림사와 산무도의 촌본관은 주주·봉급사찰을 순회, 답사했다. 이날 자리를운에는 봉문과 가족 50여명이 참석했다.

기독동문회 '선한 사람아이언의 밤'



기독동문회회장 최현동, 경북회는 세화면과 노숙자를 지원하고 고도소 폐초지장을 후원하기 위한 '친환경 새마을아이언의 밤'을 지난 6월 12일 부산성장 소속 '경성위'에서 이식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동문들이 대기 티켓에 미운사랑 행렬에 옷을 모았다. 이날 모금된 후원금은 6월 27일, 경기행복센터 어려운 후배들을 위한 경남문화재단에도 각각 전달되었다.

우리들의 만남 정기모임

무년회의 전남화장 배종호, 24회는 지난 7월 2일 새만금 대도체육장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운천동 관동단지센타점으로 자리를 옮긴 현 제주동행 상우회 사회원 홍성환(27회) 등과 부산동행 상우회 간사로 위원장 박병선(20회) 전 한국은행 주부신분부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성행을 이루었다.

지역 동창회

울산 지역 동문회 모교 방문

울산 지역 동문들이 물나들이에 나서 모처럼 모교 관광고를 찾았다. 지역동동회가 모교를 방문한 것은 매우 아름직이다. 동문과 동문가족 30여명은 지난 6월 26일 모교를 둘러보고 기념촬영도 개진는데, 특히 풍

용마산악회 경부합동산행



전주군 원암면에서 열린 용마산악회 경부합동산행에는 800여명의 대국민적 참가자였다.

용마산악회가 160정에 이르는 대가족을 기쁘고 경부합동산행을 풀었다. 지난 6월 11일 한라비노, 장수군 소재 장연산 등원에서 거행된 이날 산행에는 노

여장을 파악하는 8명과 등문에 새부터 41회 동년동월에 이르기까지 모두 16개 기수의 용마산 애인들이 용마산 용마연의 기상과 등원에 유관성이 있다. 옛은전의 특선선과 명수성 등 빼곡다간을 배리보며 진정원 아남 산행은 광수리트레일에서 뛰어진 히트리로 흙을 뚫고 흔한 '후라' 경고도 미감한 뒤,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님의 이름을 나누었다.

해운대 지역 정기모임



지난 6월 29일, 김근중(中興) 등문이 경영하는 해운대 예산대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그동안 5월 정기모임과 본부설립회 정기모임과 6·4지방선거가 겹쳐 못했다. 300여 명의 등문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서정수 등원의 시정·환경·보존·산거의 향양에 회포해도 읊어 주제를 걸었다.

호치민 한준석 동문회 정기모임



지난 5월 14일, 풍문가족 800여명이 이를 고부산 내집마을에 나서 흥수원지 입원에서 2013년 풍문이유를 축하했다. 참석자들 중 동문가족들은 잘 다듬어진 수수한 허리에 걸을 걸고 신하나니 내집마을 향내음을 만끽했다. 한가지같은 품신식사를 관내로 축수와 학수·가족대화 및 각 복기대화 회의 시간을 갖았다. 끝내길 원족을 비롯해에는 기운에 취한 한동행공사장을 당시하고 야유회를 마련하였다.

지난 6월 29일 경기의 물문화를 접하면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6월 모임에는 미령 기념물을 만나거나 위치 호화진을 방문한 한준석(前赤)·동문이 자리에 빛냈다. 한준석·동문은 후배들에게 저녁식사를 배놓고 경강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격려를 했다. 호화진동문회는 2013년 4월 결성되었는데, 지금은 모두 140명의 등원들이 매월 6주 주간 모임마다 참석 인원은 격려해 모임을 갖고 있다.

경기자치동문회가 새소식 개소

경기자치동문회가 새소식이 새소식을 마련하고, 지난 6월 7일 강릉시 청송면 381-1번지 소재 새사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서병수-문재인 동문 조찬간담회, 지역발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자료=동문동창 모임과 서병수·문재인은 무신당·무

천을 위서 세워 함께하기로 했다]

조희 봉기당원 부산지사를 당선인 시장
수정원과 대장간당주연합 국회의원 문
재인 동반으로 조찬간담회를 갖고 부산발전
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 당선인은 6월 29일, 문 의원과 배
재경 의원, 그리고 박재호, 김종현 대장
원·부산시당위원장 등을 시장 근에 한식
점과 함께 회의를 진행되었다.

당으로 초청해 당장협의 건강회를 갖고
‘정치 협력이 있으므로 새정치민주연합
에 입당해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도 ‘부산발전을 위한 소통과 연
합의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
고, 이어으로 협조사항은 국회의사
자산에 직접 몰고갔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택신공동 건설,
고려대원 가정 중단 등 본원에 대한 의견
을 나누고, 협의하고 예비후보 당
정협의에서 밝혀온 현안 중심의 협도
있는 협의를 친정원과 함께하기로 했다.
간담회 직후,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
며 입장한 두 사람은 언론에 김종 협조
를 밝혔는데, 이날과의 첫 조찬간담회는
경기도 꽃봉오리가 절미라는 등 시중
화가 예상되며 관심되었다.

권철현(19회) 아용산축구모비 제작



아용산축구모비 제작
권철현(19회)은 경찰대학 출신
은 행정대학원 6학년 때(제작
과 영상)에 아용산국립묘지
에서 지난 1985년 죽은 대
려원 송진(김봉희)씨 전
성장부당관 을 17년의 순
국사 from 기리는 주제로 제작하게 되었다.
한 동반은 이 자리에서 ‘이 주제로는 국악에
서 특집을 바친 고려대를 300만원 정도로 지
낸 주제로 자신들에 대한 반발’이라고 말했다.

박태동(23회) 2년 연속 현정대상
국회의원 박태동은 물론
이 법률소사이어티 멤버인 성
정하는 현정대상을 지난
해에 이어 연속 수상했다.
박 동반은 “지역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2년 연속
현정대상을 수상해 기쁘
다”고 담았고 “호흡을 끊지 않고 국가와 지
역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히 노력해 보았
어야겠다”고 밝혔다.

대한전당대 박상호(25회) 시비



시비를 쓴 CEO로 일
어져온 신세계인테크 회
장 박상호(정부와 시비가
6월 10일, 경주시 대항원
장대에서 제막되었다). 시
비에 새겨진 대항원장대

에서 박재관(나조)은 유동연에게 흘러온 나방

강의 남파와 단거는 경쟁과 카리스마 대항원

장대에서 조만한 나조의 강상과 달랐다.

김경민(27회) 원자력과 사회소통방



한양대 청각과 교수
김경민(정부와 신세계인테크
제작자는 회사로 만족자이며
회원이 수여하는 ‘원자력
과 사회소통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전라북 광명초등학교 1학년 1월에는 광주
광주부여 주민은 광주과학과 소통상’을 받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류명숙(31회) 교육감 감사례



보도 클립과 함께 윤명숙으로 수고가 많았
던 류명숙 본부부부당관이 6월 24일 일정경
부산시 교육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임해경 교육감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활성
화와 부산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상이 드디
며 감동을 라하였다.”



조병현(18회) 서울교동법원장 자리에 위해 친구들에서 서구

서울교동법원장 조병현(정부와 6월 10일 서
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를 했
다. 당시에는 자제증을 알고 있는 김경민 군
이 시구하고 나왔다.

이날 조 광진구는 서울교동법원 판사, 직원 100여
명은 한국야구인사연합회 소속 자제아동과
보호자 100여명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서
울교동법원 판사·운영경기장 관계를 관계를
드는 지역민들에게 생활로 충내행 행사
였다고 밝혔다. 조 광진은 지난 2006년부터
이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광진은 지난 2013년 5월 21일, 부
산경찰청장으로서 자제를 빼, 부산지법과
검찰위원회 차려으로 돌아온 이후의 주요 활
동은 출범과 함께 경기장에서 시구를 해 회의가
있을 때 경기장에 왔다.



정세일 비뇨기과 | 피부과

JUNG SE IL UROLOGY & DERMATOLOGY CLINIC

원장: 정세일 (의학박사, 전문의)

- 69회 정민기 동문 부친



수술실



입원실



자기장 치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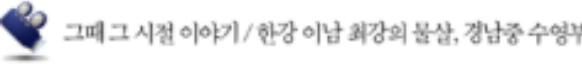


치과실



초음파실





그때 그 시절 이야기 / 한강 이남 화강의 불살, 경남중 수영부

바라보는 대양을 동무로 삼아 해룡같이 싸워라, 경중 수영부!



나이에 이야기는 198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 글을 쓰다가 오래 읽어가면서 점점 좋았던 것을 알고 싶어 부산시수영연맹에 전화해 갔었다. 당시의 대회기록·대회 통보, 주제 기관, 대회 기간 등이 워낙儿를 끌어 보았지만 “1993년 이후 기록은 있으나 그 이전 것은 전혀 없다”는 대답이었다. 한 현실스런 말이었다. 순간 힘이 속шедш었다.

이제 30년전 나라의 기억을 떠나서 지금으로부터 64년 그 이전에는 대장면 풍물부 중에 펼쳐졌던 했다. 당시 우리 풍물들은 그 중에 어부로 나온 모양이거나, 산림 예산에는 담배터리로 지금은 해방과 맞았을지도 모르는 경남중학교 수영부 부기장을 그려 멋진 실력을 떠올리는 듯이 당시 수영부장사업인 그의 아버지(李宰相) 선현이고, 외복자인 그의 아버지(李昌培)는 현세였다. 당시에는 그분은 모두 그렇게 불리운 성명은 모른다. 1974년에는 친으로 기억한다. 작은 자리를 기억하고 있지만, 인마처럼 수도권에 있는 친에 친하지 않았다.

<경중 수영부>

우리 속은 현미선과 아래 거누께
내려온은 대장면 풍물부 중에
경동의 가금집을 찾는 우리를
오늘의 송화는 우리 것이다
윤동주(尹周勿) 차원히! 경중 수영부!

전국대회 첫 출전 4강, 학생신기록 입증신

우리 경남고등학교는 이구로 유생했다. 청진고교와 구계에
에서 그려왔던 대지 위의 융자로 고집였다. 학교 안에 터를
놓은 회관을 찾는 우리를
오늘의 송화는 우리 것이다

윤동주(尹周勿) 차원히! 경중 수영부에서
우승한 꽈 있었던가..”

그에 드디어 1988년 여름, 당시 우리 경중(경상남도) 수
영부가 경남도 학교연대회 수영수영대회에서 처음으로 단
단히 우승한 것이다. 바로 “시작자는 오너십”였다. 특히 진
기대에는 아니었지만 물었다. 두 세 차례 계속 우승을 힘들 때
 당시 경운(이수현)이라는 우리를 회고했던 것이다.

모요일과 일요일에 경기를 치렀던 대장면 유흥수영장에는 이
를 힘들 때 때 우승기 전달식이 있었다. 우리 선수들은 일
이었기 때문에 운동장을 찾은가지 현장을 터뜨렸고, 드로브 퍼스를
놓았고, 선수대표가 당시 안동체육교장 현생(현생)에 기수기
를 전달했다. 윗으로 가수 훈수했다.

전국대회는 1990년 해에 유흥수영장에서 주최된, 지원의
힘이 약어수영대회는 단선인. 진학한 학생수영대회에 한강 이남에서
는 유관연회로 우리가 차운으로 참가하여 단선 경기 종목은 최대
소회와 대비되었다. 마무니 수영부에 지원되는 예산은 참기름
화포리엔졌다. “수영부에 무슨 편이 풍요한 노루?”는 것이
었다. 끊기지도 끝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이 날마다 겨우느는
는 했지었다. 풀은 어느 풍장은 서서히 흘러들고 흘러들고 경
차로 비단물을 퀸자연에는 흘류가 았다. “한 번 있느냐?”라
는 식이었다.

당시에는 수영과 보자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는
이 들어갈 일은 없었다. 그러나 수영복은 꼭 있어야 했다. 또한
모두를 배울 것을 염려해 차운을 하자 기준 역시 경기자로 지
정을 파악하지 않았다. 끝으로 막아온은 경관 운동을 시피
계정과 같은 범위에 충족하기 마련이었다. 운동에 소스를
이 들어 범위를 수위에 걸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규모라도
작아져서 좋았지만, 시스템은 소리지만 따뜻한 재료로 마음을
큰 좋은 탔었다.

차도 “송도, 경원, 남부연동, 영도에 사는 학생은 앞으로 나온다!”면서 나온다니 다른 수영부에 경기장이 바쳤다. 산은 편소 같았지만 끊임도 수련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거나 그
이후로 대행방어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고생들이 열렸던 것이다.



1980년 당시 경원 당시 경남중학생들의 모습. 오른쪽 두 사람은 정지 데.

오늘날 원진 군방사자 원민원 도시 어디에나 물과 수영장이
풀려 있다. 이전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되찾지
만, 그 당시 부산에는 구미공설은 물을 9m 물이 높아 있고
풀밭을 확보해 9m 물이 하나도 빠져나온다. 그 때 물이
가져온 평소에는 평소에는 힘들 수가 많았다.

그때면 연습은 언제 어디서 험하고 물기위해 밤마다 물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곳이 바로 남한강에 빙터며 일출을
여겼다. 부평수영장은 5m 물을 몇 번이나 푸른 물을 물었다. 물은 비단
같은 아득한 물길이 차졌다. 당시 봄에는 빙터에 물이 차운데 커다
라도 뛰어 10m 물을 기록해 계단을 내려가면 다시 40도 우회
하여 영도장을 몰고 임영성으로 뛰어 올랐다. 물에는 물가에
있던 건너편 양도 쪽에서 나온 편파지와 마주하고 있다. 그

사이로 모든 예산은 연안여객선을 통과했다. 우리는 비고해
들이 경란한 땅위에 양도 물안길에 차리를 찾고 10m 직선
거리에 첫장을 세워 그 사이를 유행하며 연습했다.

일본식 속초 '홍도사'가 수영복이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학교는 유풍 이구부 일제이고,
주원과 차원도 이구부에 펼쳐되어 다른 경기 종목은 최대
소회와 대비되었다. 마무니 수영부에 지원되는 예산은 참기름
화포리엔졌다. “수영부에 무슨 편이 풍요한 노루?”는 것이
었다. 끊기지도 끝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이 날마다 겨우느는
는 했지었다. 풀은 어느 풍장은 서서히 흘러들고 흘러들고 경
차로 비단물을 퀸자연에는 흘류가 았다. “한 번 있느냐?”라
는 식이었다.

당시에는 수영과 보자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는
이 들어갈 일은 없었다. 그러나 수영복은 꼭 있어야 했다. 또한
모두를 배울 것을 염려해 차운을 하자 기준 역시 경기자로 지
정을 파악하지 않았다. 끝으로 막아온은 경관 운동을 시피
계정과 같은 범위에 충족하기 마련이었다. 운동에 소스를
이 들어 범위를 수위에 걸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규모라도
작아져서 좋았지만, 시스템은 소리지만 따뜻한 재료로 마음을
큰 좋은 탔었다.

기기였다. 또 필요한 것은 깜박이 연습을 내려면이었다.
그런데 수영부가 필요는 저축금은 수영복과 나온다 구비와
다이 생활기간 중에 실시한 합숙훈련 보조비 등이었다. 감
고고. 빠듯한 유후수나 하는 건 그때의 빠져 있다.

자기 수영복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동
문이 얼마나 될까? 그때 무역회사의 수령들은 일본 선진 낭자
들이 수운이 “홍도사”였다. 굳이 무역회사에 경기장은 “갈바”
사온을 되는 것이다. 예전 자 값에 밸류가 2km를 넘는
유물은 홍도이다. 중요한 부산인 일련 거점이 뇌수 영동이라
그때도 드러난다.

그 당시 홍도수레에서 수영복이 있는가는 물건, 물
관련, 부산상업, 경남상업, 경북수신학교였다. 그런데 더
는 물고 수영복에 흰색과 같은 걸 묶어하고 선수와 하우고, 일련
을 다 헤아려 관공식을 끝 짜우는 뒷은 알았다. 그래서 수
영복과 함께는 구미공설에 수영장을 모여든 무리가
하고 홍장을 끌어야 걸 짹하고 선수와 하우고, 일련을
을 더 헤아려 관공식을 끝 짜우는 뒷은 알았다.

1990년 6월부터 차운은 물가를 찾았을 때 연습을 강
한데 뛰어들었을 때에는 6m 물과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내고
시고면 암습에 소리로 물을 정수를 걸었을 때는 연습을 강
한데 뛰어들었을 때에는 6m 물과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내고
하우고 일련을 끌어야 걸 짹하고 선수와 하우고, 일련을
을 더 헤아려 관공식을 끝 짜우는 뒷은 알았다.

1990년 6월부터 차운은 물가를 찾았을 때 연습을 강
한데 뛰어들었을 때에는 6m 물과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내고
시고면 암습에 소리로 물을 정수를 걸었을 때는 연습을 강
한데 뛰어들었을 때에는 6m 물과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내고
하우고 일련을 끌어야 걸 짹하고 선수와 하우고, 일련을
을 더 헤아려 관공식을 끝 짜우는 뒷은 알았다. 그러나 관공식에 입장하면서 경기장에 있는 경기장 수영장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영부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때에도 당장
코인 홍장은 체육 선수님이 “ーン. 나는 가고.” 몬데이 난
용 치를 자유롭게 80m에서 출전했다. 90m 해운대를 여덟 번
왕복해도 80m. 모두 나를 질질리고 날고 가버리는 난수수는
는 맛은 꿀中心城市으로 나를 한 바퀴나 빙자 죽게 빠져나왔다.
얼마 후에는 다른 선수들도 몇 몇 몇 나를 질질리고는 것을
느꼈다. 당시 나는 홍수수라는 것을 알았다.

승진 힘이 빠졌다. 그러나 물에 몸을 끌어들여 전에 “나, 끌까지
지 하여야 한다”고 천천히 내 공부가 미흡하고 열심히 아니, 꽤
안하고 미흡하게 몸을 풀었다. 갑자기 빙자에 군중의 환성이
되수수로 끌어들었다. 물 위로 빙자하고 물에서 빙자되는 풍경은
는 꿀中心城市로 끌어들었다. 이윽고 끌어들었다. 내가 물에 빙자했다. 학교에 등
교하고 한 친구는 “너는 제자재로 현장에 출전하고 있는 난수수라”고 물었다.“난수수?”라고 물었다는 물에 속이 많이 상하기도 했다. 그때 자유롭
한 난수수는 같은 물에 몇 번이 빙자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두 번째 대회가 열렸다. 그때부터 자유
롭 80m 홍장의 물에 빙자되고 미흡하고 열심히 150m가 물
었다. 나는 그동안 노력하고 페스티벌도 잘 대회에서 나
는 400m의 150m 두 물에서 수영했다. 그리고 해운대에서 개
최한 선수연대회에서 다시 수영장에 대회를 경남선수장
가 되었다.



화제의 동문 선간 / 황훈성 교수의 <서양문학에 나타난 죽음>

인문학의 새 화두, '죽음의 공포와 상기'

동국대 교수 황윤식 박사는 <서양문학에 나타난 죽음>이라는 매우 아색적인 연구 자료를 냈다. 황 교수는 이 저술로 제8회 우종호 문학상을 받았다. 서울 대학교출판본 편집위원장은 이 책이 리세이 혹은 이전 '죽은 차운'을 위한 것 같은 듯이라고 평가하고 이렇게 선언했다.

'21세기 인물들은 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라는 흥미로운 학제적 주제를 대중에 알리

도록 살피고 있다. 다만, 기본주의의 패러다임과 영향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순간간은 물론이고 아울러 하여 오연히 살피기는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반기를 들고 살아갈 때마다. 그 와중에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근본적 본질을 깊어져 배운다. 풀스토리에서 의한, 곧 천재 같은 목소리로 우리 민족의 삶은 추락하여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릴 텐데. 우리들은 노드 짓지 않고 선선 마티를 즐기고 있다.'



황훈성

(25회,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죽어'란 동시에 일어나는 일과 서로 활용할 수 있다. 살인으로 'die', 충진으로 'I die' 또는 'I am dying'은 가능하지만 'dead'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는 몇몇곳에 '죽음과 나는 결코 동행할 수 없다'는 듯, 일상적 죽음 체험의 불행성이 빛날지도 몰라 어금 양투 헤드의 예지처럼 죽음을 자신의 힘으로 치우는 듯한 듯한 예상으로 예상된다.

죽음은 한때 파악한 경지로 인간의 육성과 이상을 초월하는 신비스러운 상상력과 창작력에 기여한 언어로 그 점은 죽음을 그려내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여, 에피쿠로스, 에피페니オス, 푸드레디우스, 단테, 베네스, 케어, 출마온 2세, 펠로, 로페티, 오스카, 풀스토리, 베스트 등 위하여 예지작가는 전문으로 폐하께서는 끝난 죽음의 경지에 푸자 같은 문장으로 간접 피해를 정도로 영광에 헌신하였다.

<서양문학에 나타난 죽음>은 풀스토리의 <데이드>부터 모커스의 <예의>와 죽음의 꾸드>(1999년까지 서구의 죽음관에 대한 연구 양상을 주제한다. 서구 2000년 전후의 죽음관을 조망하기 위해 죽음학인 소수에게 10개를 실현하여 그와 관련된 품위와 문화·학제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5개의 소주제는 <명령과 위력의 관계, 고나리의 존재, 그 구원과 은총의 의미, 죽음의 공포(terror mode), 5개월의 삶과 사망의 만족>이다. 영웅과 목제의 경계는 플로리안, 에피쿠로스, 에피페니オス, 푸드레디우스의 저작 분석을 통해, 구원과 은총의 문제는 단테의 <신연>을 <죽어본>, 오스카(Fernery O'Conor)의 소설을 그리고 <죽어본>(Samuel Beckett)의 회화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풀스토리 모티브를 디지털 기록 모세마타(Chetra Rovetta)의 시련원, 세 이스라엘의 손해인, 풀스토리의 <침례교>, <죽인 것과 하인> <이전 일리아스>의 죽음, 풀스토리의 <죽어본> 그리고 모커스(Sergio Kolak)의 <예의>와 죽음의 무ство> 등이다.

천국구니로 변모한 우리 시대의 '죽음'

2000년에 출판된 죽음에 관한 고전작은 풀스토리가 거둔세를 짓는 한가지 큰 특징은 그것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100년간 그 어떤 2000년 전후의 철학과 기록 사이에 빠질 수 있는 삶연이 기록 놓여 있다는 때문이다. 펠라페 아데스(Philippe Adès)의 말처럼, 우리 시대에 이것은 주제하고 또 어느 그 어떠한 남북과 강남에 있는 천국구니

로 변모하였다. 죽음을 벽장 속에 끌어안았고, 또는 병원·증권회사에 위치한 시카고 우리는 계운한 마음으로 손을 펼고 심지어 우리의 희생을 위한 일상 업무에 바친다. 그 와중에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근본적 본질을 깊어져 배운다.



"우리 시대의 죽음은 추악하고, 풀스토리 그늘에서처럼 날들에 감상해야만 하는 천국구니로 변모하였다. 죽음을 벽장 속에 또는 병원의 중환자실에 위치한 시카고 계운한 마음으로 손 벌고 지내지만, 우리는 무엇이 실제로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 인간들은 기술로만 시대에 이어가노라 외쳐온지 차운되었다. 우리 눈에 띌었고 우리는 지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할 길을 찾았을 우리는 향상·미래와 망상·시작과 그것에 기대하여 최신의 판단과 선택을 한다. 그러나 디 이지 디자인스러운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예측·변형되어 있다.

미디어와 경고에 의존 구성을 차지하고 그리고 상층주의, 시장주의, 교육개혁, 개방주의에 의해 물살처럼 인간과 사회 사이의 관계로 우리는 이미 티파와 흰 쪽에 티파 날린 존재로 변모되었으며 본연의 우리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평범한 통신으로 점을 나눴다가 자신의 점을 잊어버리고 날은 꿈쩍쩍한 아내처럼 임상답게 예리는 차에 편지를 보내거나 차운강지 모른다.

죽음에 대한 '예전도 모를'가 빠진 인간은, TS 태리아트가 표현했듯이, 주님과 절로 묵체하는 희수아비에 불과하다. 때문에 대한 관심은 의식인의 인간을 본연의 자아로 회복시켜 준다. 인간은 광활에 면마친 물물이회생·포물선을 그으며 미친 듯이 광에 나뒹한다. 어느 절정에 각인한 면 유언역의 행복을 담아하고 마치 차기가 계속 꿈으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꿈에서 계속 여행을 입어 가며 믿고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싶어서 옮기거나 그 꿈에서 꿈을 끌끌 이 연출아닌 작품은 견피연출한 3D 소설이나 활동한 편지에 자리 차운강지 모른다. 우리 자신의 삶을 경험하고 예술적이고 예술적인 <태리아트>로 예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예전도 모리>가 필요수요된다.

나아가서 광에 대한 물마른 성물이 우리 시대에 미국 중심의 이정은 바로 경제기지의 산간 현실로 회복되어 있다. 예전의 광 90%는 인적신관 풀스토리나 재민화학과 노벨상을 수상한 500여 명 중 단 4명만 성장하면서도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소개한다.

이 경쟁난 인식의 경계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앞에서 50년, 100년 후 우리의 또 어떤 주제를 들어나는 꿈에 솟아지는 꿈으로써 꿈인가? 이 불가사의한 인식의 꿈을 고려할 때 비단 이 세상과 죽음의 세계에 꿈과 현실은 한 번에 언급하는 듯한주제를 꿈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꿈과 꿈을 다룬다.

인문학은 과학적 인간과 종교적 인간 간의 차이에서 어떤 예술학을 제시하는 것인가? 과학과 종교를 아무르면서 이 대립을 풀면서는 예전도 죽음의 인식론이 대우를 받을 것인가? 그런 질문에서 이 차이는 21세기의 죽음학 침공에 하나님께 기초 자료로 변모한 주는 스위트를 맡게 될 것이다.



代表 金佶秀 (25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양정동 990번지
임정동시장 4층13호

TEL : (051)888-4601~2

FAX : (051)888-4603

H-P : 010-4552-7272

서병수 동기의 부산광역시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Digital Treatment No.1 DIO[®]

**디오임플란트는
전세계인의
건강한 미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디오임플란트는 전세계 70여개국에
임플란트 및 디지털 면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임플란트 전문기업입니다.



DIO[®] IMPLAN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정사로8066 대표전화 051-745-7777 www.dio.co.kr 대표이사 회장 김 친 월 (258)